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2020 September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September 2020, 9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①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
수 Wed

그에 의해,
그를 통해,
그를 위해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① 통독본문 Reading Plan

골로새서 Colossians 1장

③ 새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④

아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2

⑤

백접기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새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를 보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지음 받았
다는 믿음 가운데 더욱 뿌리내리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②

골로새서 1:9-20

⑥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
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
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
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
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
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
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
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
께 섰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히 만물의 으
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
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
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As Paul and Timothy wrote the epistles to the saints of the new churches in Colossae, they thanked God for their faith and love, and prayed for the growth of their deeply rooted faith that all things are created by Christ and for Christ.

Colossians 1:9-20

⁹ And so, from the day we heard, we have not ceased to pray for you, asking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¹⁰ so as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fully pleasing to him,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¹¹ May you be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for all endurance and patience with joy,

¹²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¹³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¹⁴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¹⁵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¹⁶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¹⁷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¹⁸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¹⁹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²⁰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만물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16절)
By whom, through whom, and for whom are all things created? (v. 16)~

만물과 만물이,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케 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 무엇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까? (20절)
Through whom and by what is the harmony among all things and between God and all things possible? (v. 20)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전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임스 사랑의 교회, 이병훈(A)
과드시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형백(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24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바울의 신년 연설

New Year message by Paul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시어도어 파커의 글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연설은 of, by, For, 이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반면 바울은 링컨보다 약 1,800년 전에 by, through, for라는 전치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자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 세워진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분의 우월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을 포함한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16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 없이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17절). 비록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의 한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불의가 실재하지만, 참된 현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화목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분에 의해(by) 다스려지고, 그분을 힘입어(through) 행동하며, 그분을 위해(for)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In the midst of Civil War on November 19, 1863, Abraham Lincoln at Gettysburg made the famous speech by quoting from Theodore Parker,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he speech used three prepositions: “of, by and for” to illustrate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Paul 1,800 years earlier than Lincoln, through three prepositions of “by, through, and for”, taught the believers who Christ was. Paul had a special reason for writing the epistle to the saints of the newly planted church in Colossae. Although they had the faith, they did not yet fully understand what it meant to believe in Christ and the sovereignty and sufficiency of Christ. All things including all worldly power and authority were created by Christ and through Christ and for Christ. (v. 16)

We should not forget that Christ was the king of the kings though He died on the cross defenselessly as a young man. All things in the world we live cannot exist without Christ. (v. 17) There exist unrighteous things in the world as if the world is taken over by evil power but that is not true reality.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unrighteousness, true reality is that Jesus Christ will ultimately rule the world and through Him all things will live in harmony. As we face new year 2020, the faith that we must grab on is that this new year will be ruled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6



25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예배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바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09

[illegible]

TUESDAY

1

6

7

8

13

14

15

사도행전 Acts
14장 □

20

21

22

사도행전 Acts
20장 □


27

28

29

사도행전 Acts
27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사도행전 Acts 2장 □	3 사도행전 Acts 3장 □	4 사도행전 Acts 4장 □	5 사도행전 Acts 5장 □
9 사도행전 Acts 9장 □	10 사도행전 Acts 10장 □	11 사도행전 Acts 11장 □	12 사도행전 Acts 12장 □
16 사도행전 Acts 15장 □	17 사도행전 Acts 16장 □	18 사도행전 Acts 17장 □	19 사도행전 Acts 18장 □
23 사도행전 Acts 21장 □	24 사도행전 Acts 22장 □	25 사도행전 Acts 23장 □	26 사도행전 Acts 24장 □
30 사도행전 Acts 28장 □			
		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야기로 알아보는 사도행전

“신약 성경 중 가장 많은 양을 집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바울’이란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럿 들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답은 바울이 아닙니다. 정답은 ‘누가’라고 불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이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 은 전체 신약 성경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저자가 쓴 저작으로는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베들레헴의 예수님으로부터 로마 감옥의 바울까지, 초기 기독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 적지 않은 양이 이 한 사람, ‘누가’의 보고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깊고 철학적인 신학을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묵묵히 기록해 후대에 전해준 ‘누가’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디모데후서 4:11과 골로새서 4:14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 누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사이에 나타나는 많은 불일치로 인해 정말로 누가-행전(Luke-Acts)을 지은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맞을지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인 시기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기원후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크게 두 부분으로 -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 -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주인공이 베드로라면, 뒷부분의 주인공은 단연 바울입니다. 앞부분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주변 지역에 복음이 퍼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면 9장부터 이어지는 뒷부분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8:1이 사도행전이 첫 부분(part)에서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는 큐 사인(Que)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누가-행전에 두서너 번 반복되는 이 표현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복음의 확산’을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도 엿보입니다.

과거에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으셨던 분이라면 책의 중간과 끝부분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화자의 인칭이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모두 네 부분-16:10-17; 20:5-15; 21:1-18; 27:12-28:16-에서 갑자기 말하는 화자가 “우리”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부분”(we section)이라고 부르는 이 네 곳은 저자의 자신의 개인적 기록에서 직접 옮겨온 것일 수도 있고, 바울의 다른 동역자의 기록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으며, 저자가 문학적인 표현 방법의 하나로 화자의 인칭을 바꾼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였다고 보아 이제 막 생겨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보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도들의 행적과 설교를 읽고 사람들이 힘과 영감을 얻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사도행전 저자의 목적이 역사적(historical)이라기 보다 신학적(theological)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행전은 선교사의 기도 편지나 사역자의 목회/사역 이야기와 펍 닮았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글을 써서 나누는 이유는 그 글을 읽고 누군가 영감을 얻어 그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때론 얼굴도 모르지만- 서로 연대하여 힘을 내자는 격려의 말인 셈이죠. 이번 달,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누가가 그의 책 곳곳에 숨겨놓은 이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동이 온다면,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 한 마디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함께 일하는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기독교 공동체: 1:1-26
2. 예루살렘과 주변에서의 증거사역: 2:1-8:4
3.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 8:5-40
4.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말씀, 이방인 선교: 9:1-14:28
5.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루살렘의 결정: 15:1-35
6. 바울의 선교와 증거: 15:36-22:21
7. 바울, 복음 증거하다 옥에 갇히다: 22:22-28:31

The New International Study Bible Standard Vers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p.1954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01 SEP
화 Tue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Promise of
the Descent of
Holy Spirit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장



새185장(통179장)
이 기쁜 소식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문서(Luke-Acts), 곧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누가)에 의해 기록된 책들이다. 누가복음을 1부작(volume one)으로, 사도행전을 2부작(volume two)으로 명명할 수 있다. 누가복음은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술한 책이며,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한 초대 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기술한 책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

사도행전 1:1-8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The author of Luke-Acts, that is the Gospel of Luke and the Book of Acts, is the same person and the Gospel of Luke is the volume one and the Book of Acts is the volume two. The Gospel of Luke reports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nd the Book of Acts addresses the ministry of the Apostles of the early church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he core of today's scripture is about the promise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by Jesus Christ as He was ascending to heaven.

Acts 1:1-8

1 In the first book, O Theophilus, I have dealt with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each,

2 until the day when he was taken up, after he had given command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3 He presented himself alive to them after his suffering by many proofs, appearing to them during forty days and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4 And while staying with them he ordered them not to depart from Jerusalem, but to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which, he said, "you heard from me;

5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6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seasons that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몇 일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까? (3절)

After the resurrection, how many days did Jesus spend on earth tal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v. 3)

“요한은 ()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각각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words to fill in the blank spaces in the following sentence? John baptized you with ()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 in a few days. (v. 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유바사랑의교회, 이진식(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령의 능력이란?

Power of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권능’은 힘, 혹은 능력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희랍어 ‘뒤나미스’를 번역한 말로써 ‘공업용 폭약’을 뜻하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즉,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적과 기사와 같은 신기한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악령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와 같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령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충만을 가리켜 능력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충만은 다름 아닌 사랑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순교자, martyr)이 될 수 있습니다.

Jesus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v. 8) The word ‘power’ means ‘strength or ability’. Here the word power was translated from a Greek word “dunamis” that was the origin of the word ‘dynamite’, the ‘industrial explosive’. In other words, the Holy Spirit contains tremendous power like dynamite. Though the Holy Spirit has the power, we should not assume that there would be always wonders wherever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witnessed. Because evil spirit could also evoke wonders.

But there is one thing that an evil spirit cannot do. That is love. Therefore, the ability of the Holy Spirit is the ability of love.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us, it means that the power of love has come on us. Full of Holy Spirit means full of ability. Then, full of ability also means full of love. The strength and ability of love is the source of driving power to be witnesses (or martyr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ends of the ear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2 SEP
수 Wed

성령 강림과 초대 교회의 모습

Descent of the
Holy Spirit and
the image of
the early churches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장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였다. 그 후에 베드로가 능력있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약 삼천 명)이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열 한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므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였다.

사도행전 2:37-47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The Holy Spirit that Jesus promised came to the people gathered at Mark's attic on the day of the Pentecost. After that Peter proclaimed the Gospel with vigor, many accepted his message and were baptized and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Eleven Apostles including Peter had shown many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so that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nd the believers of the early church gathered together every day with joy and the community continued to grow.

Acts 2:37-47

37 Now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38 And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39 For the promise is for you and for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everyone whom the Lord our God calls to himself."

40 And with many other words he bore witness and continued to exhort them, saying, "Save yourselves from this crooked generation."

41 So those who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ere were added that day about three thousand souls.

42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43 And awe came upon every soul, and many wonders and signs were being done through the apostles.

44 And all who believed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45 And they were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belongings and distributing the proceeds to all, as any had need.

46 And day by day,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and breaking bread in their homes, they received their food with glad and generous hearts,

47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y by day those who were being save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세요.

Peter replied, "() and be (),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 (v. 38) Please fill in the blanks.

초대 교회의 주목할만한 특징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44-47절)
Please list noteworthy tenets of the early church.
(vs. 44 - 47)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콘트라코스타 KUMC, 김영래(CA)
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초대 교회의 특징들

Tenets of the early church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함께함'입니다. 그들 모두 함께 지내며, 함께 나누며, 함께 먹었습니다. 성도들 모두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둘째, '자원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고, 자기의 재산과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열심히 집집마다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사도들의 강요에 의해서나 혹은 마지못해 억지로 한 일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 일들입니다. 셋째, '순수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꾸밈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아주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끝으로, '뜨거움'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어떤 일도 건성건성 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단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From Today's scripture we could learn several tenets of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The first is 'togetherness'. They gathered together, they shared together, and they ate together. They were united together as one in love. The second is 'voluntariness'. They listened to the Apostles, they prayed together, they sold their possessions and goods and gave to neighbors in need, they broke bread together in their homes and they met together at the temple courts and praised God together, and they did all these things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not by coerce of the Apostles nor reluctantly. The third is 'purity'. There was no pretension. They were simple and pure like the mind of a child. The last is 'fervor'. There was the fervor in their faith journey. When they were taught, when they prayed, when they helped others, when they shared fellowship, when they praised God, in all these things, they did with fervor and nothing was done with reluctance or half-heartedly. That was why they did not meet weekly. They met 'every day'. As a result,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3 SEP
목 Thu

베드로의 설교

Peter's preach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3장



새272장(통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인을 일으켜 걷게 한 치유 이야기이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로써,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설파했다.

사도행전 3:17-26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24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 3 of the Book of Acts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from verse 1 to 10 is the story about a man crippled from birth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to beg and afterward being healed to walk by Peter, and the second part from verse 11 to 26 is a story about the preaching of Peter at Solomon's Colonnade. Peter proclaimed to the men of Israel to believe in Jesus Christ who was sent at this end time, repent, and turn to God, so that their sins may be wiped out.

Acts 3:17-26

17 “And now, brothers, I know that you acted in ignorance, as did also your rulers.

18 But what God foretold by the mouth of all the prophets, that his Christ would suffer, he thus fulfilled.

19 Repent therefore, and turn again,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20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that he may send the Christ appointed for you, Jesus,

21 whom heaven must receive until the time for restoring all the things about which God spoke by the mouth of his holy prophets long ago.

22 Moses said, ‘The Lord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your brothers. You shall listen to him in whatever he tells you.

23 And it shall be that every soul who does not listen to that prophet shall be destroyed from the people.’

24 And all the prophets who have spoken, from Samuel and those who came after him, also proclaimed these days.

25 You are the sons of the prophets and of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your fathers, saying to Abraham, ‘And in your offspring shall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26 God, having raised up his servant, sent him to you first, to bless you by turning every one of you from your wickednes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어떤 일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습니까? (18절)

What did God prophesy and achieve through the lips of all the prophets? (v. 18)

다음은 누가 한 말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2절)

Who said the following?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r own people; you must listen to everything he tells you.” (v. 2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 KJUMC, 박용삼(C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곧 바로 유턴!

U Turn right away !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노 유턴’(No U Turn)이라는 뜻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유턴 금지는 말할 것도 없이 원활한 교통과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운전자들이 유턴하고 싶을 때마 다 아무 데서나 한다면 도로는 금방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유턴’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한곳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길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즉시 다른 방향으로 차를 돌려야 하듯이,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유대인들은 좀처럼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동족들을 향해 베드로는 ‘유턴’을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Repent and turn to God)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유턴’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멸망을 향해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즉시 생명의 구원을 향해 걸음을 돌려야 한다면, 회개는 결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곧바로 ‘유턴’(회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덤에서는 절대로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We see the road sign “No U Turn” many times as we drive around city streets and highways. Needless to say, the road sign is for the purpose of safety and smooth traffic flow an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f U turns are allowed wherever and whenever without restrictions, driving would be chaotic and hazardous. On the other hand, some ‘U turn’ is absolutely necessary in our life. As we have to make an abrupt U turn while we are driving when we suddenly realize that we are heading to a wrong direction, we have to make a sharp turn in life without hesitation when we realize that our life is heading to a wrong direction.

The life of the people of Israel was heading to wrong direction because of their ignorance and disbelief of the word of God. To the intransigent and stubborn people of Israel, Peter implored to take a ‘U turn’. Peter proclaimed to repent and turn to God. Repent means turning 180 degrees that is ‘U turn’. To stop treading toward the destructive path to death and to turn to salvation of life at once, there is no time to postpone repentance until tomorrow. We need ‘U turn’ (repentance) right away. Because there is absolutely no chance to repent at six feet under ground in gra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4 SEP
금 Fri

박해를 당한 사도들의 기도

The prayers of
persecuted Apostles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4장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이적을 베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등)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다음 날, 그들은 두 사도를 심문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성도들)에게 가서 겪은 일을 고하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

사도행전 4:23-31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Reading insight

As Peter and John healed a man crippled from birth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 people of Israel, the Jewish leaders (priests, Sadducees, and elders) arrested Peter and John and put them in jail. The next day, they interrogated two Apostles and later released them after warning them, "Do not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reported all that happened to them and prayed together.

Acts 4:23-31

23 When they were released, they went to their friends and reported what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had said to them.

24 And when they heard it, they lifted their voices together to God and said, "Sovereign Lord,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25 who through the mouth of our father David, your servant, said by the Holy Spirit, "'Why did the Gentile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26 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rulers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27 for truly in this city there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both Herod and Pontius Pilate, along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s of Israel,

28 to do whatever your hand and your plan had predestined to take place.

29 And now, Lord, look upon their threats and grant to your servants to continue to speak your word with all boldness,

30 while you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signs and wonders are performed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31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in which they were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continued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

As the Apostles and believers began to pray together, what was their confession of God? (v. 24)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1절)

What happened when the Apostles and the believers finished their prayer? (v. 31)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
광한인선교교회, 김택수(GU)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담대함은 어디에서?

Where did the boldness come from?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핍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13절, 31절). 그렇다면,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8절, 31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겁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성령께서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 담대함이 또한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대주재’(Sovereign Lord)이시고, ‘창조주’(Creator)이시며, ‘역사의 주관자’(The Lord of history)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온갖 박해와 위협을 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도무지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Peter and John proclaimed the Gospel with ‘boldness’ without succumbing to persecution and threats. (vs. 13, 31) Then where is their ‘boldness’ coming from? Of course, it must have come from the fullness of Holy Spirit. (vs. 8, 31) Before Peter received the Holy Spirit he was apparently a coward. Thrice denial of Jesus was a good proof of his cowardness. That Peter changed completely. Without doubt the Holy Spirit made him that bold.

If we look at the contents of prayers of the Apostles and the believers, we can also affirm where the boldness came from. In short, their boldness stems from their faith in God. God confessed by them was called, ‘Sovereign Lord’, ‘Creator’, and ‘The Lord of History’. What does this confession indicate? No matter how the Jewish leaders were persecuting and threatening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e believers had no fear because they believed the power of God who created and ruled the universe and controlled histor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5 SEP
토 Sat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Sins of Ananias
and Sapphira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5장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5장은 내용상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1-11절). 둘째, 사도들이 행사한 기적(12-16절). 셋째, 사도들에게 가해진 박해(17-42절).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상적인 초대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죄로써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도행전 5:1-11

-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 5 of the Book of Acts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case of Ananias and Sapphira. (Acts 5:1-11)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miracles shown by the Apostles. (Acts 5:12-16) The third part is about the persecutions endured by the Apostles. (Acts 5:17-42) Especially the event of Ananias and Sapphira was tragic, quite contrary to idealistic image of the early churches. The sins of Ananias and Sapphira, the protagonists of this case, were sins of cheating God and the Holy Spirit and were caused by their covetous greed for materials.

Acts 5:1-11

- 1** But a man named Ananias, with his wife Sapphira, sold a piece of property,
- 2** and with his wife's knowledge he kept back for himself some of the proceeds and brought only a part of it and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 3** But Peter said, "Ananias, why has Satan filled your heart to lie to the Holy Spirit and to keep back for yourself part of the proceeds of the land?"
- 4** While it remained unsold, did it not remain your own? And after it was sold, was it not at your disposal? Why is it that you have contrived this deed in your heart? You have not lied to men but to God."
- 5** When Ananias heard these words, he fell down and breathed his last. And great fear came upon all who heard of it.
- 6** The young men rose and wrapped him up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 7** After an interval of about three hours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 8** And Peter said to her, "Tell me whether you sold the land for so much." And she said, "Yes, for so much."
- 9** But Peter said to her, "How is it that you have agreed together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Behold, the feet of those who have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 10** Immediately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breathed her last. When the young men came in they found her dead, and they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 11** And great fear came upon the whole church and upon all who heard of these thing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3-4절)
What did Peter tell Ananias when he rebuked him?
(vs. 3-4)

베드로가 삽비라를 책망하며 한 말을 무엇입니까? (9절)
What did Peter tell Sapphira when he rebuked her? (v. 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NE)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요번 아멘은 취소!

Cancel this Amen !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재산(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릴 결심을 하고 기쁨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생각이 달라져 일부를 빼돌리고 사도들 앞에 바쳤을 때에, 두 사람 각각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집회 시간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축복,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등 폭포수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강사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 모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사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 빼돌리지 말고 온전한 십일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하자, 아멘 소리가 훨씬 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엉겁결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법 재산이 많은 여자 권사였습니다. 갑자기 그 권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지금 한 아멘은 취소합니다. 아, 글썄 요즘의 주동아리가 겁도 없이 아멘을 했지 뭐니까?” 하면서 자기의 입술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 기뻐서 한 아멘을 혹시 도중에 취소한 것 아닐까요?

Ananias and Sapphira probably decided to offer the proceedings of the disposition of their possessions (property) to God like so many other believers and most likely disposed their property with joy. Then when they had the money at their hands from the disposition of their property, they changed their minds and had hidden some of the money and offered the remainder to the Apostles, but Peter knew what had happened and rebuked both of them and they lost their lives. Here is a story. There was a revival worship gathering at a certain church. The preacher proclaimed at every meeting the holy blessings from God, the blessings from the earth, the blessings of long life, the blessings of good health, the material blessings, the blessings of the children, and so on, so many and so much blessings like flowing water falls.

At every pause of the preacher's proclamation, the entire audience in the pew responded with loud "Amen! Amen!". But when the preacher said,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glory to God, and you should offer honest tithe without withholding any part of what belongs to God." The response of Amen by the audience was much softer. Then there was a Deaconess at a corner of the church who shouted "Amen!" without meaning it, and she was a relatively affluent Deaconess. She raised her hand and shouted, "Pastor, please cancel the Amen that I just shouted. My lips were fearless, and I uttered Amen by mistake." And she slapped her lip. Ananias and Sapphira may have begun Amen with joy then they had cancelled their Amen later, hadn't the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우리가 교회 될 때

김영봉 목사 (와싱턴 사범의교회, VA)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병들거나 다치면 그제서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손의 통증은 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몸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통으로 인해 고생할 때면 “치아가 좋지 않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몸이 편치 않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교인 각 사람은 몸의 지체와 같고, 예수님은 몸의 머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평안할 때에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한 지체에게 어려움이 생겨나면 그제서야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한 지체에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이 아니라면 교회도 아닙니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 마더 한 분이 급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들을 돌보아 주고 간호해 줄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속회 식구들과 교우들이 시간표를 짜서 나흘 동안의 입원과 그 이후의 회복 과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간호해 주셨고, 한 가정은 아들을 집에 들여 며칠 동안 등교와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셨으며, 어떤 분들은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신 분들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

에서 여러 번 낯날이 시큰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속으로 ‘그렇지, 이게 교회지!’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 자폐를 가진 청년이 예배에 왔다가 중간에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너무 자주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다쳐서 몇 주일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 예배에 나오고 싶다는 그 청년을 속장님이 데려온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자제를 잘 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 자신도 어찌지 못했던가 봅니다. 예배 진행에 심한 방해가 될 정도로 자주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를 데려오신 속장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예배 중간에 그 청년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이 한 시간 내내 소리를 내어도 모두가 참고 견디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인내력이 없으니 한 몸이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점잖게 차려 입고 정숙하게 앉아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한 지체가 아프면 그것을 나누어 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몸으로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7 SEP
월 Mon

성령의 사람 스데반

Stephe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6-7장



새293장(통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명의 지도자들을 택한 이야기와 그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대 교회에는 외부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성도들은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였는데, 보다 효율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다.

사도행전 6:3-15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8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10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is a story about seven leaders that were elected by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and Stephen among the seven and about his preaching and his martyrdom. The early church faced persecution and oppression from outside and difficulties of various kinds from inside. But the believers managed to resolve all those problems wisely, and they adopted a resolution to elect leaders for more efficacious evangelism of Gospel and church administration and carried out the resolution.

Acts 6:3-15

3 Therefore, brothers, pick out from among you seven men of good repute,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whom we will appoint to this duty.

4 But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5 And what they said pleased the whole gathering, and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nd Philip, and Prochorus, and Nicanor, and Timon, and Parmenas, and Nicolaus, a proselyte of Antioch.

6 These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and they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7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8 And Stephen, full of grace and power, was doing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9 Then some of those who belonged to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as it was called), and of the Cyrenians, and of the Alexandrians, and of those from Cilicia and Asia, rose up and disputed with Stephen.

10 But they could not withstand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he was speaking.

11 Then they secretly instigated men who said, "We have heard him speak blasphemous words against Moses and God."

12 And they stirred up the people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and they came upon him and seized him and brought him before the council,

13 and they set up false witnesses who said, "This man never ceases to speak words against this holy place and the law,

14 for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will change the customs that Moses delivered to us."

15 And gazing at him, all who sat in the council saw that his face was like the face of an angel.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한 일곱 명의 지도자들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6장 5절)

What are the names of the seven leaders who were elected by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v. 5)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장 59-60절)

What did Stephen pray for when he was dying by stoning? (Acts 7:59-6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A)(CA)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천사의 얼굴

The face of an angel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천사의 얼굴은 환히 빛나는 얼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을 것이며, 그 얼굴빛은 그의 내면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다면, 가인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며(참고. 창세기 4장 6절),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와 같이 그것 또한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참고. 창세기 40장 6절). 우리 마음에 아무리 악한 감정을 감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바깥으로 드러납니다(잠언 26장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면, 그것은 분명 그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모습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내 얼굴에도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지, 즉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 가득한 평안과 기쁨의 광채가 환히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cts 6:15 said, “The face of Stephen was like the face of an angel.” Apparently, the face of an angel was illuminating bright light. Hence the face of Stephen must have been illuminating bright light, and it must have been coming from inside of him. Like Cain in Genesis 4:6, if our minds are full of hatred and jealousy, our facial expression will show them, and if our minds are full of worries, that will also show on our facial expression like Joseph’s brothers in Genesis 40:6. No matter how well we try to hide evil in our minds, it would be exposed to outside without knowing (Proverb 26:26, “His malice may be concealed by deception, but his wickedness will be exposed in the assembly.”).

If Stephen’s face was like that of an angel, it must have been naturally permeated from inside. Stephen was a man full of the Holy Spirit. His face resembling an angel must have been the result of the Holy Spirit. We must often take a look at our own face. We must check if our own face has any resemblance of the face of an angel, in other words, if our soul, full of the Holy Spirit, emanates the bright light of inner peace and jo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8 SEP
화 Tue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Gospel proclaimed
in Samaria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8장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이다. 전도의 열매로 사마리아에 사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는 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다.

사도행전 8:4-17

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Reading insight

The text is a report of what happened when Philip, one of the seven leaders of the early Jerusalem church, went to Samaria and proclaimed Gospel. As a fruit of evangelism, many sick people in Samaria were healed, and many men and women of all ages believed in Jesus and were baptized. As Philip was leaving Samaria, he met a eunuch from Ethiopia and proclaimed Gospel to him and baptized him.

Acts 8:4-17

4 Now those who were scattered went about preaching the word.

5 Philip went down to the city of Samaria and proclaimed to them the Christ.

6 And the crowds with one accord paid attention to what was being said by Philip when they heard him and saw the signs that he did.

7 For unclean spirits,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came out of many who had them, and many who were paralyzed or lame were healed.

8 So there was much joy in that city.

9 But there was a man named Simon, who had previously practiced magic in the city and amazed the people of Samaria, saying that he himself was somebody great.

10 They all paid attention to him,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saying, "This man is the power of God that is called Great."

11 And they paid attention to him because for a long time he had amazed them with his magic.

12 But when they believed Philip as he preached good news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baptized, both men and women.

13 Even Simon himself believed, and after being baptized he continued with Philip. And seeing signs and great miracles performed, he was amazed.

14 Now when the apostles at Jerusalem heard that Samaria had received the word of God, they sent to them Peter and John,

15 who came down and prayed for them that they might receive the Holy Spirit,

16 for he had not yet fallen on any of them, but they had only been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17 Then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오랜동안 마술을 행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

Who was the man who boasted how great he was and practiced sorcery for a long time in the city of Samaria? (v. 9)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보낸 두 사도는 누구입니까? (14절)

When the apostles in Jerusalem heard that Samaria also received the word of God, who were the two apostles sent to them? (v. 14)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드림교회, 정영희(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복음 안에서의 연합

United in Gospel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면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곳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론을 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대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립의 전도를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결과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별개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장차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세계 선교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양 교회는 연대의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과거, 율법에 의해서는 서로에게 철저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양쪽 진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과거에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이제 복음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It was quite surprising when the people of Samaria had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were baptized. Philip visited Samaria and produced fruits of his evangelism, then why were Peter and John sent to Samaria to pray for the Holy Spirit to come to the people of Samaria? This is what I propound, they did it because of their desire for connectedness with the church in Jerusalem. The Gospel was proclaimed in Samaria via the ministry of Philip and as a result, a church was founded in Samaria.

Then the Samaritan church should not be a separate church from the church in Jerusalem. For the continuing future evangelism of the world mission field, there was a deliberate need for connectedness between two churches in Jerusalem and Samaria. The two parties had had opposing theologies and doctrines in terms of the Law but in term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y were united and they needed to let the world know. The visit of Samaria by Peter and John, whereas the Jews and Samaritans didn't even talk to each other, was a declaration of unity in Gospel to the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9 SEP
수 Wed

사울(바울)의 회심

Conversion of
Saul (Paul)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9장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 박해를 가했던 사울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
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
데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누구보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증
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사도행전 9:3-17

-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 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이다 하니

Reading insight

While Saul had been persecuting many Christians and churches for some time, he headed for Damascus carrying the document authorizing him by the Chief Priest to arrest Christians who were scattered into many cities to avoid persecution but they were still spreading the Gospel. On the way Saul met the resurrected Jesus and experienced conversion. As a result, the one who was at the forefront to destroy the church was converted into one who was dedicated to build the church as a witness of the Gospel.

Acts 9:3-17

3 Now as he went on his way, he approached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4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5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6 But rise and enter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are to do.”

7 The men who were traveling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the voice but seeing no one.

8 Saul rose from the ground, and although his eyes were opened, he saw nothing. So they led him by the hand and brought him into Damascus.

9 And for three days he was without sight, and neither ate nor drank.

10 Now there was a disciple at Damascus named Ananias. The Lord said to him in a vision, “Ananias.” And he said, “Here I am, Lord.”

11 And the Lord said to him, “Rise and go to the street called Straight, and at the house of Judas look for a man of Tarsus named Saul, for behold, he is praying,

12 and he has seen in a vision a man named Ananias come in and lay his hands on him so that he might regain his sight.”

13 But Ananias answered, “Lord, I have heard from many about this man, how much evil he has done to your saints at Jerusalem.

14 And here he has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to bind all who call on your name.”

15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16 For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the sake of my name.”

17 So Ananias departed and entered the house. And laying his hands on him he said, “Brother Saul, the Lord 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road by which you came has sent me so that you may regain your sigh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어 그가 땅에 엎드려진 순간, 그의 귀에 들린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4절)

What was the voice of the Lord to Saul when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and he fell to the ground on his way to Damascus? (v. 4)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에 관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5-16절)

What did the Lord tell Ananias about Saul in his vision? (vs. 15 - 16)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구나힐스 KUMC, 림학춘(CA)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환대가 일으킨 회심

Conversion evoked by hospitality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박해자로 악명을 떨친 사울에게 환대를 베푼 아나니아와 유다, 두 사람입니다. 인도의 존 카르메건은 치료 불가능한 중증 나병환자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머무를 곳을 제공하였고 일자리도 주었으나 그는 늘 있는대로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 한 분이 그를 정성으로 보살핀 결과,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심이 존의 인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중이 일어나 첫 찬송을 부르는데 앞 자리에 앉은 한 인도사람이 몸을 180도 뒤로 돌리더니 존의 일행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찬송가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옆 자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존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는 발을 질질 끌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사건이 존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학적인 치료, 애정어린 보살핌, 재활 훈련 등이 나름대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볼품없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자기 곁에 있자고 부른 한 사람의 따뜻한 환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In the story of the conversion of Saul, we should not miss an important point, that is, there were two important persons named Ananias and Judas who had shown hospitality to Saul who was then known notorious as a persecutor. John Carmegan of India was a leper patient in the last stage of the incurable disease. Several people offered him a place to live and some offered him a job, but he was a perennial troublemaker. So many people considered him beyond redemption but one old woman really took care of him and eventually he became a Christian. But the conversion did not have an immediate impact on his personality. Then one day John went to church for worship service. When the congregation was standing and singing a hymn, one of the congregants turned around 180 degrees to look at John and his group. And this Indian man put the Hymn book on the chair and pointing the space next to him with smile he motioned to John to proceed next to him. After a short hesitation John dragged his feet and moved next to the man. This incident became a turning point for John's life. Until then John received medical treatments, received loving care from others, received rehabilitation trainings, and all these were somewhat helpful but what really turned him round was the warm hospitality of a Christian brother who asked a lowly and unimportant man like John to sit next to him.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0 SEP
목 Thu

고넬료와 베드로

Cornelius and Peter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0장



새465장(통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베드로는 로마정부에 의해 파견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그 곳에 모여 있는 이방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셨다.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 모두 성령을 받고 또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0:1-8

- 1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 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 8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Reading insight

Peter visited Cornelius who was a centurion of the Italian Regiment commissioned by the Roman Empire and proclaimed Gospel to him and the gentiles gathered in his household. God was directly involved in this event. That is, the Lord appeared in the visions of Peter and Cornelius simultaneously and the gentiles gathered at Cornelius' house accepted the Gospel through Peter and they all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were baptized.

Acts 10:1-8

1 At Caesarea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of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Cohort,

2 a devout man who feared God with all his household, gave alms generously to the people, and prayed continually to God.

3 About the ninth hour of the day he saw clearly in a vision an angel of God come in and say to him, "Cornelius."

4 And he stared at him in terror and said, "What is it, Lord?" And he said to him, "Your prayers and your alms have ascended as a memorial before God.

5 And now send men to Joppa and bring one Simon who is called Peter.

6 He is lodging with one Simon, a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

7 When the angel who spoke to him had departed, he called two of his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from among those who attended him,

8 and having related everything to them, he sent them to Joppa.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평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절)

What kind of daily life style did Cornelius have as he was known as a God-fearer? (v. 2)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에게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5절)

What did the angel who appeared to Cornelius in his vision tell him to do? (v. 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스앤젤레스 KUMC, 이창민(CA)
로스웰리츠연합감리교회, 신병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기도한 대로 살아야

A life worthy of prayer

사도행전 저자는 고넬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2절). 고넬료의 믿음은 기도와 행실이 아름답게 조화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구제만 하지 않았습니 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 다. ‘많이’ 구제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가 1919년에 간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를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 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넷째, 타 종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 종교들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가십시오.” 간디의 이 말은 믿음과 실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The author of the Book of Acts introduced Cornelius as follows: “He and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Acts 10: 2) Cornelius’ faith was a combination of prayer and deeds in beautiful harmony. He did not just give to the needy. He ‘always’ prayed. But he did not just pray. He gave ‘a lot’ to those in need. A Missionary in India, Stanley Jones, met Mahatma Gandhi in 1919 and asked him this question. “If we want to make the Christianity to establish naturally a firm root in India, please tell us what you think we should do.”

Gandhi replied, “I would like to propose 4 things. The first, all Christians including Missionaries should live like Jesus. The second, live into the teachings of your religion. Do not degrade the elegant tenets of the teachings. The third, emphasize love and use it as the driving force. The fourth, study other religions more actively, and seek out goodness from them and approach the people in those religions with friendly attitude.” The comments of Gandhi emphasized harmony between faith and actual living. There is a good reason to learn from Cornelius’ faith. He always prayed and was very generous. He lived up to what he pray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1 SEP
금 Fri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Church of Antioch
and Barnabas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1장



새197장(통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한 베드로의 보고(1-18절)이다. 베드로는 이방사람 고넬료와 관련되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다른 하나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19-30절)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사도행전 11:19-30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Reading insight

Acts 11 consists of two parts. One was the report of Peter at the church in Jerusalem (11:1–18). Peter reported thoroughly about everything that happened at the gentile Cornelius' house. And another was the story about the church in Antioch. (11:19–30) When the church in Jerusalem heard the report that many people in Antioch came to believe in Jesus,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to find out details of what was going on.

Acts 11:19–30

19 Now those who were scattered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at arose over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and Cyprus and Antioch,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Jews.

20 But there were some of them, men of Cyprus and Cyrene, who on coming to Antioch spoke to the Hellenists also, preaching the Lord Jesus.

21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who believed turned to the Lord.

22 The report of this came to the ears of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23 When he came and saw the grace of God, he was glad, and he exhorted them all to remain faithful to the Lord with steadfast purpose,

24 for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And a great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25 So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26 and when he had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For a whol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a great many people. And in Antioch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27 Now in these days prophets came down from Jerusalem to Antioch.

28 And one of them named Agabus stood up and foretold by the Spirit that there would be a great famine over all the world (this took place in the days of Claudius).

29 So the disciples determined, everyone according to his ability, to send relief to the brothers living in Judea.

30 And they did so, sending it to the elders by the hand of Barnabas and Saul.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 출신이었습니까? (20절)

What region did the people who proclaimed the Gospel even to the Greeks in Antioch come from? (v. 20)

사도행전 저자는 바나바를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4절)

How did the author of the Book of Acts introduce Barnabas? (v. 24)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밸리중앙연합감리교회, 이동규(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Eye to catch God's grace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Cyprus)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 곧 유대인 레위 지파에 속한 이민 2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참고. 사도행전 4:36-37). 그 교회 성도들은 그의 헌신을 눈여겨보았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신생(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결보 기에도 참으로 연약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The original name of Barnabas was Joseph. He was born in Cyprus, a descendant of Jewish diaspora and a second-generation immigrant belonging to the Levite tribe. After he accepted Jesus, he sold the farm land that he owned and offered the money to the church and became a member of the church in Jerusalem (Acts 4:36-37). The members of his church watched his dedication and gave him a new name 'Barnabas' which means 'son of comfort'. Being sent by the church in Jerusalem, Barnabas arrived at the church in Antioch. The verse 23 says, "When he arrived and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Barnabas had keen eyes to detect the grace of God. It might be possible because Barnabas was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t the time, Antioch church was a newly planted church. Therefore, the church might have been lacking many things, and even the outside appearance must have been fragile. But Barnabas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there and was very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What we need is to have the keen eyes to capture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like Barnabas who was full of the Holy Spir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2 SEP
토 Sat

베드로의 투옥과 구출

Peter's
Imprisonment
and Escape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2장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Herod Agrippa I) 의해 참수를 당했다. 그 기세를 몰아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했다. 결국 그마저 체포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셨다.

사도행전 12:1-12

-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 6 헤롯이 잠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 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음을 입고 따라 오라 한대
-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Reading insight

As the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 church and its leaders intensifies, Apostle James is beheaded by Herod Agrippa 1, the grandson of Herod the Great. They also tried to put Peter to death. They eventually captured and imprisoned Peter. The Church prayed earnestly for Peter's deliverance and God sent an angel and miraculously saved Peter.

Acts 12:1-12

- 1 About that time Herod the king laid violent hands on some who belonged to the church.
- 2 He killed James the brother of John with the sword,
- 3 and when he saw that it pleased the Jews, he proceeded to arrest Peter also. This was during the days of Unleavened Bread.
- 4 And when he had seized him, he put him in prison, delivering him over to four squads of soldiers to guard him, intending after the Passover to bring him out to the people.
- 5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earnest prayer for him was made to God by the church.
- 6 Now when Herod was about to bring him out, on that very night, Peter was sleeping between two soldiers, bound with two chains, and sentries before the door were guarding the prison.
- 7 An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stood next to him, and a light shone in the cell. He struck Peter on the side and woke him, saying, "Get up quickly." And the chains fell off his hands.
- 8 And the angel said to him, "Dress yourself and put on your sandals." And he did so. And he said to him, "Wrap your cloak around you and follow me."
- 9 And he went out and followed him. He did not know that what was being done by the angel was real, but thought he was seeing a vision.
- 10 When they had passed the first and the second guard, they came to the iron gate leading into the city. It opened for them of its own accord, and they went out and went along one street, and immediately the angel left him.
- 11 When Peter came to himself, he said, "Now I am sure that the Lord has sent his angel and rescued me from the hand of Herod and from all that the Jewish people were expecting."
- 12 When he realized this, he went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whose other name was Mark, where many were gathered together and were praying.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베드로가 잡힐 때는 유대인들의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3절)

Peter arrested during a holiday. What holiday was it? (v. 3)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 누구의 집으로 갔습니까? (12절)

After Peter was rescued from the prison, whose house did he go to? (v. 1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CA)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덕(HI)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교회의 힘

The Power of the Church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 극악무도한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고, 이제 베드로마저 처형을 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둥(참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켜 '기둥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소멸은 교회를 한순간 위기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 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곧장 그는 성령 강림의 현상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마가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기도는 어젯밤, 그러니까 베드로가 투옥되던 시점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교인수나 화려한 건물이나 재정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James and Peter were two of the original disciples of Jesus. James was beheaded by Herod Agrippa I and Peter was arrested, facing a similar end. The execution of the "pillar" figures in the Early Church was more than enough to create a sense of crisis in the Christian church (*Peter, James and John are referred to as "pillars" in Galatians 2:9). After hearing the news of Peter's arrest, the church earnestly prayed to God for Peter. God heard the prayers of the people and sent an angel to rescue Peter.

When this miraculous rescue first took place, Peter did not know what was really happening. He simply followed the directions given by the angel and thought that he was seeing a vision. But later, he finally realized that God sent an angel to rescue him from hands of Herod. After his rescue, he went straight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Mark, where many people had gathered and were praying. In fact, they started praying from the night before since Peter was arrested. The true power of the church is not in the size of its membership, in its fancy building or in the condition of its finances but in prayer. A truly powerful church is a praying churc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장재웅 목사(워싱턴 하늘 비전 교회, MD)

상처(Scar)를 품으면 진주, 별(Star)이 됩니다. 큰 상처가 큰 별을 만듭니다.
(A big scar into the big star) 상처는 우리 인생의 자산(Resourc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ar와 Star는 'c'와 't'의 차이입니다.

C(curse 저주)를 T(thanks 감사)로 만들때 별(Star)이 됩니다. 대란(큰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대임(큰 사명)을 맡기듯 큰 상처가 큰 별을 만듭니다(A big scar into the big star).

힘들고 아파도, 지치고 낙심되어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삶과 사람은 굽히고 부딪히며 둥글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 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상처(Scar)를 별(Star)로 만들어가는 상처 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서 사는 그 길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인생의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히 아름답게 세워져가기를 원하십니다.



14 SEP
월 Mon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3장



새200장(통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구브로와 살라미, 그리고 바보라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밤빌리아의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3:1-12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Reading insight

The church at Antioch decided to take an important action for spreading the Gospel to the world. While they were praying and fasting, they were led by the Holy Spirit to send Barnabas and Saul (Paul) as missionaries. Barnabas and Saul went first to Cyprus, Salamis and Paphos to proclaim the Gospel. Then they headed to Perga in Pamphylia and on to Pisidian Antioch.

Acts 13:1-12

1 Now there were in the church at Antioch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who was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a member of the court of Herod the tetrarch, and Saul.

2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3 Then after fasting and praying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4 So, being sent out by the Holy Spirit, they went down to Seleucia,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Cyprus.

5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And they had John to assist them.

6 When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as far as Paphos, they came upon a certain magician, a Jewish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7 He was with the proconsul, Sergius Paulus, a man of intelligence, who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

8 But Elymas the magician (for that is the meaning of his name) opposed them, seeking to turn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

9 But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intently at him

10 and said, "You son of the devil,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full of all deceit and villainy, will you not stop making crooked the straight paths of the Lord?"

11 And 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unable to see the sun for a time." Immediately mist and darkness fell upon him, and he went about seeking people to lead him by the hand.

12 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occurred, for he was astonish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나바와 사울(바울)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 만났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는 누구입니까? (6절)

Who is the Jewish false prophet that Barnabas and Saul met in Paphos? (v. 6)

그 곳에 있었던 총독으로서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따로 불러 하 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

Who is the proconsul in Paphos who sent for Barnabas and Saul so that he can hear the word of God? (v. 7)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사랑나무교회, 이상호(CA)
산타마리아베델KUMC, 남기성(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최고의 공부

The Best Study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6절). 결국 그는 주님께 대한 가르침에 깊이 감동이 되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지혜가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배웠으며, 말씀을 통해 지혜의 하나님을 만났으며, 마침내 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공부가 있습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에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공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려면, 성경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Proconsul Sergius Paulus who sent for Barnabas and Saul so that he can hear the Word of God was an intelligent man. At the end, he was inspired by the teachings about the Lord and became a believer. The proconsul listened attentively and learned from the Word of God and, through the study of the Word, came to know God and believe in Jesus Christ.

There are many things that one can study in the world. In our age of information, there are so many things to study and to lear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study is not any of the "informational knowledge." It is the study of the Word of God. Studying and learning about Jesu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ne's faith in Jesus comes from learning about Jesus. If God is the Word and Jesus is the Word made flesh, what can be more important than God's Word? A truly intelligent person, a person of true wisdom is no other than one who listens, reads, meditates, memorizes, learns, and studies the Word. Every person who studies the Word faithfully and diligently will experience growth in the wisdom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5 SEP
화 Tue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의 완수

Completion of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4장



새521장(통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되돌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비시디아와 밤빌리아, 버가, 앓달리아 등을 통과하여 본래 파송받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갔다. 어디를 가든지 박해와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

사도행전 14:19-28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앓달리아로 내려가서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고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Reading insight

This text describes the completion of the first mission trip. Paul and Barnabas went to Iconium, Lystra and Derbe and then returned to Lystra and Iconium before heading out to Pisidia Antioch. After that, they went to Pisidia, Pamphylia, Perga, and Attalia before returning to Antioch in Syria. They experienced persecution and threat wherever they went but, with God's help, they were able to reap a good harvest in their work of evangelism.

Acts 14:19-28

19 But Jews came from Antioch and Iconium, and having persuaded the crowds, they ston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city, supposing that he was dead.

20 But when the disciples gathered about him, he rose up and entered the city, and on the next day he went on with Barnabas to Derbe.

21 When they had preached the gospel to that city and had made many disciples, they returned to Lystra and to Iconium and to Antioch,

22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encourag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saying that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23 And when they had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very church, with prayer and fasting they committ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24 Then they passed through Pisidia and came to Pamphylia.

25 And when they had spoken the word in Perga, they went down to Attalia,

26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Antioch, where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at they had fulfilled.

27 And when they arrived and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they declar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and how he had opened a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28 And they remained no little time with the disciple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곳은 어디입니까? (21절)

What is the place where Paul and Barnabas won a large number of disciples after preaching the gospel? (v. 21)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27절)

What report did Paul and Barnabas bring to the church at Antioch that sent them out as missionaries? (v. 27)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현(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열려라 문!

Open Sesame!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중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환난을 겪었습니다. 19절에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총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끌어 내쳤는데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기쁨으로 보고했습니다(27절). 오랜 세월 꽂꽂혀 있던 그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의 문이 열렸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문이 반쯤 열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때는 열려 있었는데 다시 닫아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문은 은혜의 문이며 또한 구원의 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귀의 청력과 영적인 눈의 시력이 회복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열려라 문!

Paul and Barnabas experienced unimaginable trials in their first mission trip. In v. 19, we read, “Then some Jews came from Antioch and Iconium and won the crowd over. They stoned Paul and dragged him outside the city, thinking he was dead.” But even in this kind of harsh persecution, they did not give up the work of evangelism. After their trip, they returned to Antioch,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and reported all that God had done through them and how God had opened a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v. 27). God opened the door that had long been shut in people. And they finally came to have faith. Because a door of faith was opened, their ears and eyes were also opened. And this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understand God’s Word and see the spiritual world. Unfortunately,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ll around us whose door of faith remains shut. For some, this door of faith may be open only halfway. For others, their doors of faith were wide open at one time but since have closed shut. In truth, this door of faith is also the door of grace and salvation. Let’s pray and hope that God will use the lips of evangelists to open their doors of faith that the ears and eyes of their hearts may be open to experience God’s salvation in their lives. Open Sesa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6 SEP
수 Wed

예루살렘 사도회의

The Council
at Jerusalem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5장



새284장(통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15장에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기록되어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변론을 하게 된 주요 의제는 바로 이방인들의 유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소위,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바울, 바나바 등은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사도행전 15:12-21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Reading insight

In Acts Chapter 15, we find the story of the Jerusalem Council of Apostles that provides a watershed moment in the history of the early Christianity. It tells the story of how the Council struggled and debated regarding the reception of Gentile Christians into the church. Those who belong to the party of the Pharisees argued that the Gentiles must be circumcised and required to keep the law of Moses. On the other hand, Peter, James, Paul and Barnabas argued that such requirement is not necessary.

Acts 15:12-21

12 And all the assembly fell silent, and they listened to Barnabas and Paul as they related what signs and wonders God had done through them among the Gentiles.

13 After they finished speaking, James replied, “Brothers, listen to me.

14 Simeon has related how God first visited the Gentiles, to take from them a people for his name.

15 And with this the words of the prophets agree, just as it is written,

16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I will rebuild the tent of David that has fallen; I will rebuild its ruins, and I will restore it,

17 that the remnant of mankind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says the Lord, who makes these things

18 known from of old.”

19 Therefore my judgment is that we should not trouble those of the Gentiles who turn to God,

20 but should write to them to abstain from the things polluted by ido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and from blood.

21 For from ancient generations Moses has had in every city those who proclaim him, for he is read every Sabbath in the synagogue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야고보는 시므온 (베드로의 히브릭식 이름) 이 무슨 말을 했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5절)

What does James remind the Council regarding Simon's ("Peter" in Hebrew is "Simon") address? (v. 15)

야고보가 제시한 타협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절)

What alternative solution did James propose? (v. 2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름다운 교회, 오대현(네)
아이예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웅(네)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분열을 피할 수 있다

Divisions Can Be Avoided

이방인들의 유입은 초대 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다수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특히, 할례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기독교는 영원히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11절).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19절). 그러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타협(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20-21절). 오늘 우리 교회(교단)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분열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Reception of the Gentiles was a big challenge for the early church. At the time, the majority of the early church was Jewish Christians and some of them were extreme conservatives. Their argument was simple. Even if the Gentiles come to believe in Jesus, they still have to follow the law of Moses, especially the Law of Circumcision. If they had accepted this argument, Christianity may have become one of the branches of Judaism to this day. Fortunately, Peter and James, who are significant figures in the Jewish Christianity, argued at the Jerusalem Council of the Apostles that the Gentile Christians should not be burdened with the Law.

Peter said, “We believe it is through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at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v. 11).” James also said, “It is my judgment, therefore,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v.19).” And he proposed an alternative solution (compromise) to the issue. “Instead we should write to them, telling them to abstain from food polluted by idols, from sexual immorality,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blood. ²¹For the law of Moses has been preached in every city from the earliest times and is read in the synagogues on every Sabbath (v. 20-21).”

If we have leaders in our church (denomination) today who are filled with God's Spirit and wisdom, we will also be able to avoid divis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7 SEP
목 Thu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Paul's
second mission trip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6장



새249장(통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대한 기록이다. 우선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서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했다. 본문에는 그들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압볼리를 거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6:20-33

-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Reading insight

Acts 15:36 to Acts 18:23 records the apostle Paul's second mission trip. After parting with Barnabas, Paul took Silas and Timothy, and went to Antioch. Today's reading describes the work of this team in Philippi.

Acts 16:20-33

20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m to the magistrates, they said, "These men are Jews, and they are disturbing our city.

21 They advocate customs that are not lawful for us a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22 The crowd joined in attacking them, and the magistrates tore the garments off them and gave orders to beat them with rods.

23 And when they had inflicted many blows upon them, they threw them into prison, ordering the jailer to keep them safely.

24 Having received this order, he put them into the inner prison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25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26 and suddenly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so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nd immediately all the doors were opened, and everyone's bonds were unfastened.

27 When the jailer woke and saw that the prison doors were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supposing that the prisoners had escaped.

28 But Paul cried with a loud voice, "Do not harm yourself, for we are all here."

29 And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and rushed in, and trembling with fear he fell down before Paul and Silas.

30 Then he brought them out and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31 And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32 And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to all who were in his house.

33 And he took them the same hour of the night and washed their wounds; and he was baptized at once, he and all his family.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20-21절)

The owners of the slave who had a spirit and predicted the future, seized Paul and Silas. They brought them before the magistrates. What charges did they bring against them? (vs. 20-21)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간수를 향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31절)

What did Paul and Silas say to the jailer who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v. 31)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CA)
연약교회, 구진모(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옥터를 움직인 찬송

Hymn that shook the Prison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옷은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불결하기 그지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 두 발은 차꼬에 든든히 채워진 채 움푹달라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구조 받을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이 극에 달했던 그날 밤, 자정 무렵에 입을 열어 힘껏 기도하고 크게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희망에 관한 우리의 영원한 메시지는 새벽이 곧 밝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괴로움을 주는 그 한밤중의 혹독한 시련을 생각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반드시 새벽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노래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가 바로 위대한 ‘흑인영가들’(Afro-American Spiritual)인 것을 압니다. 그들의 노래는 곧 옥터를 움직인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절망의 절규가 아니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의 공표로서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새벽의 찬가였습니다.

As Paul and Silas were preaching the gospel, they were attacked by the crowd and were stripped and beaten. Then were put in to jail while their feet were fasted in the stocks. The chance of being released was zero. Even in this situation,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Suddenly,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and the prison doors flew open. This reminds us of Martin Luther King's conviction that the infinite hope comes just as joy comes in the morning.

The Korean Liberation movement from the Japanese also sang a song of hope in the most horrific times. Even if they had to undergo tortures and misery, they sang a song of hope expecting that the morning will come without fail. They sang the African American spirituals. Those were the spiritual songs that that shook the prison of bondage. It was not an outcry of despair but it was the song of hope to declare that “We will live” and the arrival of the morning of jo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8 SEP
금 Fri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에서의 선교

Paul's mission in
Thessalonica,
Berea and Athens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7장



새199장(통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제2차 세계 선교여행 중, 세 도시 곧 데살로니가, 베뢰아, 그리고 아덴에서 행해진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도시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각각 다른 반응들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부를 했고, 베뢰아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고, 아덴 사람들은 조롱을 했다.

사도행전 17:5-15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기억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려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Reading insight

In this chapter, Paul travels to Thessalonica, Berea and Athens to preach the gospel. Interestingly, each city responds to the Word of God differently. In a broad stroke, the Thessalonians rejected the gospel, the Bereans received it well and the people of Athens mocked the gospel.

Acts 17:5-15

5 But the Jews were jealous, and taking some wicked men of the rabble, they formed a mob, set the city in an uproar, and attacked the house of Jason, seeking to bring them out to the crowd.

6 And when they could not find them, they dragged Jason and some of the brothers before the city authoritie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also,

7 and Jason has received them, and they are all acting against the decrees of Caesar, saying that there is another king, Jesus.”

8 And the people and the city authorities were disturbed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9 And when they had taken money as security from Jason and the rest, they let them go.

10 The brothers immediately sent Paul and Silas away by night to Berea, and when they arrived they went into the Jewish synagogue.

11 Now these Jews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eagerness,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to see if these things were so.

12 Many of them therefore believed, with not a few Greek women of high standing as well as men.

13 But when the Jews from Thessalonica learned that the word of God was proclaimed by Paul at Berea also, they came there too, agitating and stirring up the crowds.

14 Then the brothers immediately sent Paul off on his way to the sea, but Silas and Timothy remained there.

15 Those who conducted Paul brought him as far as Athens, and after receiving a command for Silas and Timothy to come to him as soon as possible, they departe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 더 너그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11절)

Verses 11 compares the way of the Bereans receiving the message. And it says they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is country of people? What country is it?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베뢰아를 떠나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15절)

When Paul had to leave, a group of men escorted him to the next destination. Where was it? (V. 1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경 읽는 법

How to read the Scriptures

베뢰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척이나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사실 인지를 확인하느라 매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읽는 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첫째,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또박 또박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겠지요. 둘째,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씀이 귓전을 때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때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감격에 겨워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 일입니다.

셋째, 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몸으로 읽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성경통독을 수도 없이 하고, 아무리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The Bereans had noble character and they received the gospel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This sets a good example of how to study the Word of God. Here are a few suggestions of how to study the Bible.

First, read carefully with your eyes. Read Scripture one verse at a time by fully paying attention to each verse. It helps more by reading aloud.

Second, read with your heart and mind. This also means your heart is listening to the Word. When a verse or a passage touches your heart, it needs to be imprinted in your heart. And it may move your heart beyond your control which may bring tears and weeping. Reading Scripture with your heart brings the transformation of your heart.

Third, read with your body. It means to take the Word into action. We may read it with our eyes and heart but if it is not carried into your actions, that doesn't do any good. It shouldn't be just reading and listening but it must be practiced and actualized in your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9 SEP
토 Sat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

Paul in Corinth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8장



새374장(통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린도는 아가야(Achaia) 지역의 수도로써 무역과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진 항구도시였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아프로디테'(Aphrodite)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천여 명 이상의 여 사제들이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 말의 뜻은 "사치와 방탕과 음란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었다.

사도행전 18:1-11

- 1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 5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Reading insight

Corinth was the capital of Achaia and it had two nearby ports which made Corinth as an important trading point that brought great wealth to the city. They had the temple of Aphrodite which owned more than thousand women prostitutes. The Greeks would say the word "Corinthians" referring to sexual perversion and an extravagantly wasteful life.

Acts 18:1-11

- 1**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 2** And he found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commanded all the Jews to leave Rome. And he went to see them,
- 3** and because he was of the same trade he stayed with them and worked, for they were tentmakers by trade.
- 4** And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every Sabbath, and tried to persuade Jews and Greeks.
- 5** When Silas and Timothy arrived from Macedonia, Paul was occupied with the word, testifying to the Jews that the Christ was Jesus.
- 6** And when they opposed and reviled him, he shook out his garments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s! I am innocent.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 7** And he left there and went to the house of a man named Titius Justus, a worshiper of God. His house was next door to the synagogue.
- 8** Crispus, the ruler of the synagogue, believed in the Lord, together with his entire household. And many of the Corinthians hearing Paul believed and were baptized.
- 9** And the Lord said to Paul one night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but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 10**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will attack you to harm you, for I have many in this city who are my people."
- 11** And he stayed a year and six months, teaching the word of God among them.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절)

After leaving Athens, Paul went to Corinth and met a Jew, a native of Pontus. What's his name? (v. 2)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11절)

How long did Paul stay in Corinth to preach the gospel? (v. 11)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
월서연합감리교회, 신영각(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말씀에 붙잡혀

Caught up in the Word

바울이 악명 높은 고린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인간적으로 마음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참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의 기록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뛰는 놈도 아니고 나는 놈도 아니라,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성도는 붙어 다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붙어살면, 아무리 연약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s Paul said in 1 Corinthians 2:3, it was true that he was afraid and fearful to preach the gospel in the notorious city, Corinth. In spite of that, he still preached the gospel with boldness. It was because he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and entrusting himself to the Lord. No matter how intense the persecutions were, he didn't give up but lived a bold and courageous life as an evangelist.

There is a Korean saying: there is a runner above a crawler; above a runner, there is a flyer; above a flyer, there is a flea on a flyer. The Christians are the fleas that should live on the word of God. If the word of God attracted the flea, now it means the flea lives in the Word of God. If the Word and I are one, nothing can hurt us and we will live a victorious life. It isn't by my power and the power of the almighty God makes all things possibl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비난을 멈추는 순간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오래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떠오른다. 장학사가 어느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교탁에 놓여 있는 지구의의를 보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지구의의가 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요?”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마도 ‘지구의 자전축은 원래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자리에 앉은 학생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처한 선생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너희 같은 악동들이 아니면 누가 그랬겠어”라고 책망했다고 한다. 그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세상에 산적한 문제들을 두고 누구도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 사납기 때문이고, 세상이 위험해진 것은 난민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이렇게 혼미를 거듭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은 내 편 만들기에는 유리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영 무능하다. 무능이라면 그런대로 견딜만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이분법이 세상을 더욱 조각내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타자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더욱 앗아간다는 데 있다.

사실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 속한다. 인류의 첫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남자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를 만난 것 같은 감격을 담아 말한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살도 나의 살, 뼈도 나의 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이 고백 속에 담긴 것은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 나의 있음은 바로 너의 존재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아닌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 성서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이 발화한 첫 문장은 사랑의 고백이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은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왜 금지된 일을 행했느냐는 여호와와 책망에 남자는 슬그머니 핑계를 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게 줌으로 제가 먹었 나이다”. 남자는 여자를 넘어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도 뱀의 꾀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함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려 한다. 사랑의 말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원망의 말이었다. 말의 타락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타락한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녕 사람들 가슴에 건너기 힘든 틈을 만든다. 권력으로 변한 말은 힘없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기도 한다.

말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슬픔이 크다. 희망은 어디 있나? 말이 회복되어야 한다. 인류의 첫 사람들의 행태는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성경은 실낱같은 희망의 가능성도 열어 보인다. 죄의 결과 남자와 여자와 뱀은 각각 땀 흘림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 흠을 먹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선고받는다. 그 큰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인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죄로 인해 불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했다. 쓸쓸했을 것이다. 시르 죽어 지내다가 문득 개체로서의 자기 생명은 유한성 속에서 소멸하겠지만, 생명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했다. 그렇기에 그는 여자를 비난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여자에게 존귀한 이름을 부여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 거룩한 이름 아닌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통해서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역사의 어둠만 가중시킬 뿐이다. 불의는 불이라 말하고, 어둠은 어둠이라 말해야 하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멸과 혐오와 원망의 말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절망의 어둠을 넘어 자기 파트너를 ‘하와’라고 호명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아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홀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등 돌렸던 이웃들이 마주 보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비난을 멈추는 순간 빛이 우리 속에 스며든다.

21 SEP
월 Mon

바울의 제3차 세계 선교여행

Paul's third
mission trip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19장



새287장(통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다. 에베소는 제3차 선교여행 중,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였다. 당시 에베소는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소아시아의 수도로써 상업의 중심지였다. 무엇보다 그 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Artemis/Diana) 여신상과 신전이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사역을 했다(참고,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19:11-20

11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Reading insight

Acts 18:18 records the beginning of Paul's third mission trip. In this trip, Paul visited Ephesus for the first time. At that time, there were 300,000 people in the city and it was the center of the commercial trade in minor Asia. Above all, there was a huge statue of the Artemis/Diana and shrine. Paul stayed and worked in Ephesus for three years (Acts 20:31).

Acts 19:11-20

11 And God was doing extraordinary miracles by the hands of Paul,

12 so that even handkerchiefs or aprons that had touched his skin were carried away to the sick, and their diseases left them and the evil spirits came out of them.

13 Then some of the itinerant Jewish exorcists undertook to invoke the name of the Lord Jesus over those who had evil spirits, saying, "I adjure you by the Jesus whom Paul proclaims."

14 Seven sons of a Jewish high priest named Sceva were doing this.

15 But the evil spirit answered them, "Jesus I know, and Paul I recognize, but who are you?"

16 And the man in whom was the evil spirit leaped on them, mastered all of them and overpowered them, so that they fled out of that house naked and wounded.

17 And this became known to all the residents of Ephesus, both Jews and Greeks. And fear fell upon them all, and the name of the Lord Jesus was extolled.

18 Also many of those who were now believers came, confessing and divulging their practices.

19 And a number of those who had practiced magic arts brought their books together and burned them in the sight of all. And they counted the value of them and found it came to fifty thousand pieces of silver.

20 So the word of the Lord continued to increase and prevail mightily.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3-14절)

What did seven sons of Sceva, a Jewish chief priest do? (vs. 13-14)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책 값이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19절)

The sorcerers burned their sorcery scrolls and what were the values of the scrolls that were burnt? (v.19)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믿음은 마술이 아니다

Faith is not magic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 특히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자신들이 행하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의 비결이 바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령께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대신 바울이 병을 고치거나 악령을 내쫓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그걸 따라 하면 손쉽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흉내를 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악령이 쫓겨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며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하면서 그들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술을 부려보려 했던 그들은 도리어 악령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을 포기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작정 십자가를 휘두른다거나 마치 주문을 외우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수백 번 읊조린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마술이 아닙니다.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and the people in Ephesus tried to mimic the miracles. They would say “In the name of Jesus, whom Paul preaches, I command you to come out.” When seven sons of a Jewish chief priest tried this with demon-possessed people, the evil spirit jumped on them, overpowered them, and beat them which caused the sons to run out of the house naked and bleeding. The evil spirit said to them, “Jesus I know, and I know about Paul, but who are you?”

They used the name of Jesus without reverence and faith thinking that they could perform miracles. When this was known to the people, the people that practiced sorcery stopped their tricks. The miracles of God can be delivered when the name of Jesus is highly honored with faith in God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thout relying on God, waving the cross, uttering the name of Jesus like a magic spell, reciting the Lord’s Prayer or the Apostles’ Creed won’t bring the power of God. Faith is not magic.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2 SEP
화 Tue

바울의 고별 설교

Paul's Farewell
Message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0장



새221장(통525장)
주 믿는 형제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 드로아에서 앓소와 미둘레네, 기오, 사모에 들러 밀레도에 이르러 행한 바울의 지속적인 제3차 선교여행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새 다락방에서 강론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으나 바울에 의해 소생을 했고,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설교를 했다.

사도행전 20:29-38

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Reading insight

Acts 20 shows Paul's third missionary journey from Ephesus, through Macedonia and Greece, stopping by Troas, Assos, Mitylene, Samos, and to Miletus. Especially in Troas, as Paul spoke on and on at the upstairs room, a young man named Eutychus, sitting on the windowsill, became very drowsy. Finally, he fell sound asleep and dropped three stories to his death below. But he was revived by Paul. In Miletus, Paul invited the elders of the Ephesus Church and delivered farewell message.

Acts 20:29-38

29 I know that after my departure fierce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not sparing the flock;

30 and from among your own selves will arise men speaking twisted things, to draw away the disciples after them.

31 Therefore be alert, remembering that for three years I did not cease night or day to admonish everyone with tears.

32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33 I coveted no one's silver or gold or apparel.

34 You yourselves know that these hands ministered to my necessities and to those who were with me.

35 In all things I have shown you that by working hard in this way we must help the weak and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how he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36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knelt down and prayed with them all.

37 And there was much weeping on the part of all; they embraced Paul and kissed him,

38 being sorrowful most of all because of the word he had spoken, that they would not see his face again. And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울은 몇 년간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13절)

How many years did Paul serve in Ephesus as a missionary? (v. 13)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한 분은 누구입니까? (35절)

Who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v. 35)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함무근(CA)
주사랑연합감리교회, 이정현(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너무 마음이 아파서

So heartbroken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과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들이 작별할 때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바울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심했다는 말은 영어로 ‘grieve,’ 곧 마음 아파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비탄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3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하니,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보인 바울을 향해서 “아, 그렇습니까? 사도님! 참 훌륭합니다. 어서 당신 갈 길로 가십시오”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얼굴 하나 하나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서로 마음 아파하는 모습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건네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The text includes Paul's three-year ministry in Ephesus and calling for elders from Ephesus Church in Miletus to say goodbye. In verse 38, when they said goodbye, “What grieved them most was his statement that they would never see his face again. Then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Elders of Ephesus were touched by Paul's determination of martyrdom on the journey to Jerusalem. However, the word “troubled” here means “grieve,” which displays their heart aches. It means that they were so heartbroken that they were deeply troubled. The apostle Paul, who had ministered them with tears for the past three years, day and night, mentioned that he would risk his life on travelling to Jerusalem, therefore they might never see him again in the future, so their hearts were torn.

To Paul, who was determined to be martyred, they could never put him down, “Oh, are you Apostle! That's great. Go ahead and set off your way.” I could see the heartache on their faces. Their appearance must touch and change us. It is necessary for the pastors and lay members to exchange each other warm words of comfort, and weep together and join each other's heart-ach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3 SEP
수 Wed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의 완수

Completion of
Paul's third
missionary journey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1장



새447장(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의 제 3차 선교여행은 끝나고 있다. 14절까지의 전반부에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머지않아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을 미리 알게 되는데, 자칫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곧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장한 결심을 내비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사도행전 21:3-14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Reading insight

Paul's third missionary journey in Acts 21 is closing to end. The first half of chapter 21 tells of what happened in Tyre and Caesarea after Paul left Miletus. Paul soon foresaw of the troubles that would come upon him, although he might lose his life, he realized that going to Jerusalem is the fulfillment of his mission from the Lord, and he entered Jerusalem with his steadfast determination.

Acts 21:3-14

3 When we had come in sight of Cyprus, leaving it on the left we sailed to Syria and landed at Tyre, for there the ship was to unload its cargo.

4 And having sought out the disciples, we stayed there for seven days. And through the Spirit they were telling Paul not to go on to Jerusalem.

5 When our days there were ended, we departed and went on our journey, and they all, with wives and children, accompanied us until we were outside the city. And kneeling down on the beach, we prayed

6 and said farewell to one another. Then we went on board the ship, and they returned home.

7 When we had finished the voyage from Tyre, we arrived at Ptolemais, and we greeted the brothers and stayed with them for one day.

8 On the next day we departed and came to Caesarea, and we entered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who was one of the seven, and stayed with him.

9 He had four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10 While we were staying for many days, a prophet named Agabus came down from Judea.

11 And coming to us, he took Paul's belt and bound his own feet and hands and said, "Thus says the Holy Spirit, 'This is how the Jews at Jerusalem will bind the man who owns this belt and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12 When we heard this, we and the people there urged him not to go up to Jerusalem.

13 Then Paul answered, "What are you doing,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For I am ready not only to be imprisoned but even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14 And since he would not be persuaded, we ceased and said,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무슨 말을 전달했습니까? (4절)

What did the disciples in Tyre convey to Paul by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v. 4)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잡아매며 예언한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0절)

Who is the prophet from Judea who prophesied by taking Paul's belt to bind his own feet and hands with it? (v.1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카드리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카마리오희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진정한 성공

True success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예루살렘행을 만류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명이 중요하다지만 굳이 목숨까지 내걸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가이사랴 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비극적인 미래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가이사랴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행자들까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부유한 삶,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있다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평생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회심 이전의 삶보다 회심 이후의 삶이 더 짧았지만, 그는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기에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It is quite possible that Tyre's local believers discouraged Paul's journey to Jerusalem for his sake. No matter how important the mission is, why is it that Paul has to risk his own life? In Caesarea, a prophet named Agabus prophesies of Paul's tragic future, then not only the believers of Caesarea but also Paul's companions join in aborting Paul's journey. However, Paul goes on his own way despite their protests. Like Esther, with the bravery of "if I have to die, I will die", Paul is willing to give up his life for the mission of the Lord.

God has also given us a mission. As I think about what the mission is, I have to look back on how I have lived as a disciple so far. The real success of life is not about a rich and healthy life, but about how faithfully God's mission has been fulfilled. When Paul met Jesus, he knew clearly what his mission was and since then he was led by his calling. The life after conversion was shorter than the life before conversion, but he lived a truly successful life because he faithfully fulfilled the calling as a missionar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4 SEP
목 Thu

성난 유대인 군중들을 향한 바울의 연설

Paul's speech to
the angry Jewish
crowd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2장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무엇보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모함함으로써, 결국 그는 군중들에게 붙잡혀 심하게 폭행을 당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뻔했다. 본문은 성난 유대인 군중들을 향한 바울의 연설로써, 자신의 회심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

사도행전 22:3-13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 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Reading insight

When Paul entered Jerusalem, he encountered great tribulation and persecution. Most of all, the Jews from Asia drove the multitude to condemn Paul, and eventually he was caught by the crowd and violently assaulted and almost lost his life. The text is Paul's speech to the angry Jewish crowd, and the story of his conversion experience is central.

Acts 22:3-13

3 “I am a Jew, born in Tarsus in Cilicia, but brought up in this city, educated at the feet of Gamaliel according to the strict manner of the law of our fathers, being zealous for God as all of you are this day.

4 I persecuted this Way to the death, binding and delivering to prison both men and women,

5 as the high priest and the whole council of elders can bear me witness. From them I received letters to the brothers, and I journeyed toward Damascus to take those also who were there and bring them in bonds to Jerusalem to be punished.

6 “As I was on my way and drew near to Damascus, about noon a great light from heaven suddenly shone around me.

7 And I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to m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8 And I answere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to me,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9 Now those who were with me saw the light but did not understand the voice of the one who was speaking to me.

10 And I said, ‘What shall I do, Lord?’ And the Lord said to me, ‘Rise, and go into Damascus, and there you will be told all that is appointed for you to do.’

11 And since I could not see because of the brightness of that light, I was led by the hand by those who were with me, and came into Damascus.

12 “And one Ananias, a devout man according to the law, well spoken of by all the Jews who lived there,

13 came to me, and standing by me said to me,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And at that very hour I received my sight and saw him.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울의 출생지는 어디이며 누구 문하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3절)

Where was Paul's birthplace, and from whom did he learn the law? (v. 3)

바울이 눈이 먼 채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 시력을 회복했습니까? (12-13절)

When Paul entered Damascus with his eyes blind, whom did he meet to restore his sight? (vs. 12-1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크레센타밸리KUMC, 김용근(CA)
태평양연함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열심과 조심

Zeal and Caution

3절에서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며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과거의 바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듯이, 눈먼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갖되, 그 열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열심을 내는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심과 열심을 동시에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핑계로 열심을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무턱대고 열심을 내느라 조심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In verse 3, Paul says he was “just as zealous for God” prior to his conversion. Above all, Paul had a zeal for the law, and he was the one who took the lead in persecuting the church. Because of his enthusiasm, many people were imprisoned and even died. The Jews who are now persecuting Paul are no different from Paul in the past. All of them act in thinking that they are zealous for God’s will, the law, and the temple, but in reality, they are against God’s will. Therefore, not all enthusiasm is good.

As Paul before the conversion and the Jews in the text demonstrate, blind zeal is very dangerous. It is because people do the opposite of God’s will in the name of God. We should be zealous, but we should not be blinded by it. We should look closely at our motives for zeal rather than losing control by emotion. In other words, we must serve the Lord with caution and zeal. You shouldn’t give up your enthusiasm as an excuse to be careful, but you shouldn’t be too careful to give up your enthusiasm.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5 SEP
금 Fri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 선 바울

Paul at the Sanhedrin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3장



새454장(통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바울이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한 말(1-10절); 둘째, 바울을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맹세한 사십여 명의 유대인들의 음모가 밝혀짐(11-24절); 셋째, 기원후 52-59년 사이에 유대지방을 다스린 총독 벨릭스(Antonius Felix)에게 보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와 바울의 구출(15-35절).

사도행전 23:1-10

-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 오 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 3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 6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 9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The contents of Acts 23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First, what Paul said at the Sanhedrin, consisting mainly of Pharisees and Sadducees (vs. 1-10); Second, the conspiracy of over forty Jews who pledged and swore to kill Paul was revealed (vs. 11-24); Third, Paul's rescue and the letter of the captain Claudius Lysias that was sent to the governor Antonius Felix of the Jewish province between 52-59 AD.

Acts 23:1-10

1 And looking intently at the council, Paul said, "Brothers,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in all good conscience up to this day."

2 And the high priest Ananias commanded those who stood by him to strike him on the mouth.

3 Then Paul said to him, "God is going to strike you, you whitewashed wall! Are you sitting to judge me according to the law, and yet contrary to the law you order me to be struck?"

4 Those who stood by said, "Would you revile God's high priest?"

5 And Paul said, "I did not know, brothers, that he was the high priest, for it is written, 'You shall not speak evil of a ruler of your people.'"

6 Now when Paul perceived that one part were Sadducees and the other Pharisees, he cried out in the council, "Brothers, I am a Pharisee, a son of Pharisees. It is with respect to the hope 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 am on trial."

7 And when he had said this, a dissension arose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and the assembly was divided.

8 For the Sadducees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nor angel, nor spirit, but the Pharisees acknowledge them all.

9 Then a great clamor arose, and some of the scribes of the Pharisees' party stood up and contended sharply, "We find nothing wrong in this man. What if a spirit or an angel spoke to him?"

10 And when the dissension became violent, the tribune, afraid that Paul would be torn to pieces by them, commanded the soldiers to go down and take him away from among them by force and bring him into the barrack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2절)

Who was the chief priest who ordered, “slap him on the mouth”? (v. 2)

바울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Why was a quarrel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after hearing what Paul said? (v.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희망교회, 가한나(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직분에 합당한 생활

A life worthy of office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다 짜고짜 “그 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Josephus)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몹시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십일조를 몰래 횡령했을 뿐 아니라, 적이 될만한 사람들에게는 폭력도 서슴지 않은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름만 대제사장이었지 그의 생활은 전혀 대제사장답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5절에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진짜 그가 대제사장 인지 몰라서 한 말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서, 혹은 산헤드린 공회의 상석에 앉아 있는 그 위치를 보고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일종의 풍자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인가?”라는 뜻에서 말한, 일종의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라면 그 직분에 맞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다면, 중요한 것은 직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직분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Paul said, “My brothers,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in all good conscience to this day.” After hearing Paul’s words, High Priest Ananias gave the order to “strike him on the mouth.” According to the Jewish historian Josephus, Ananias was “a very greedy and vicious man, not only stealing the tithes devoted to God, but also a cruel man who used violence against those who could be his enemies.” If so, he was the high priest in name only, for his life didn’t stand as a high priest at all. Paul said in verse 5, “I didn’t know he was a high priest,” this is not really what Paul meant because Paul knew that he was a high priest.

If Paul sees the clothes of the high priest he is wearing, or the position of sitting at the Sanhedrin, Paul can know a lot. It is a kind of satire. It is a kind of insulting remark that is said in the sense of “Is that such an unrighteous man who commands to strike my mouth even though I am innocent is a high priest established by God?”. As a high priest of Judaism, he should have behaved accordingly to his position, but he never did. If we are given any position,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e position itself. It is a life worthy of offi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6 SEP
토 Sat

더둘로의 거짓 고소와 바울의 변론

Tertullus' false
accusation and
Paul's argument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4장



새505장(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24장은 변호사 더둘로의 거짓 고소(1-9절), 바울의 변론(10-21절), 총독 벨릭스의 반응(22-27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울은 유대인의 음모를 피해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 곳에서 곧 바로 벨릭스 총독에게 인도되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을 고발하였다.

사도행전 24:1-9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흠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6하반-8상반 없음)

8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Reading insight

Acts 24 contains the lawyer Tertullus' false charges (vs. 1-9), Paul's defense (vs. 10-21), and governor Felix's response (vs. 22-27). Paul arrived safely at Caesarea, away from the Jewish conspiracy, where he was soon brought to the governor Felix. High Priest Ananias arrived in Caesarea with the elders and lawyer Tertullus to accuse Paul.

Acts 24:1-9

1 And after five days the high priest Ananias came down with some elders and a spokesman, one Tertullus. They laid before the governor their case against Paul.

2 And when he had been summoned, Tertullus began to accuse him, saying: "Since through you we enjoy much peace, and since by your foresight, most excellent Felix, reforms are being made for this nation,

3 in every way and everywhere we accept this with all gratitude.

4 But, to detain you no further, I beg you in your kindness to hear us briefly.

5 For we have found this man a plague, one who stirs up riots among all the Jews throughout the world and is a ringleader of the sect of the Nazarenes.

6 He even tried to profane the temple, but we seized him.

8 By examining him yourself you will be able to find out from him about everything of which we accuse him."

9 The Jews also joined in the charge, affirming that all these things were so.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채용한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1절)

Who was the lawyer hired by High Priest Ananias and some elders to sue Paul before Governor Felix? (v. 1)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발했습니까? (5-6절)

How did Tertullus accuse Paul before Governor Felix? (vs. 5-6)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히스패리아 KUMC, 민병렬(CA)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 조수진(Russ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그리스도-팬데믹

Christ-Pandemic

2020년은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전염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삼시간에 온 세계를 공포 속에 빠뜨렸습니다. 5절에 보면 거짓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a pestilent fellow)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 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염시킬지도 모르니 하루빨리 손을 써서 처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더둘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빨리 주변 세상에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퍼져나가서는 안될 사악한 병균이겠지만,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좋은 의미에서의 팬데믹(pandemic)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팬데믹'(Christ-pandemic)의 숙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도리어 얼마나 큰 영예일까요?

I think the year 2020 will be the era when the whole world has experienced unspeakable hardship from the unprecedented coronavirus (COVID-19) epidemic. The monstrous power of this plague has quickly panicked the whole world. In verse 5, the false lawyer Tertullus blamed Paul for being a pestilent fellow. He said, "Paul is the troublemaker to all the Jews scattered around the world and the head of the heresy of Nazareth." His logic might be 'If Paul is left alone, he will be able to transmit Jesus Christ to all the people around him, so he must be executed as soon as possible.'

In fact, at some point, Tertullus' words are not wrong. If it were not for the apostle Paul, the gospel of Jesus Christ would not have spread to the surrounding world so quickly. Of course, the corona virus is really an evil germ that should not spread, but Jesus Christ, the eternal savior, can be considered to be a pandemic in a good sense for all people in the world. If we could be the hosts of Christ-pandemic like Paul, how big an honor it would be, certainly not an insul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뉴저지 Raritan Valley

도상원 감리사 (뉴저지 Raritan Valley, NJ)

<낮아짐>

박도훈

높아짐을 버리고
더 낮은 곳을 향해
아래로 아래로
낮아질수록

물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이루었다

<세상의길 그리스도의길>

헨리 나우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은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길은 실로 낮아지느 길이다.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조그맣고 연약한 아이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애굽의 피난민으로, 순종적인 청년으로, 또한 평범한 어른으로, 세례자 요한의 참회하는 제자로, 몇몇 소박한 어부들이 추종하던 갈릴리의 전도자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낮선 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으로 소외당한 자로, 죄인으로, 또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위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향선은 신적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다. 바로 이 신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28 SEP
월 Mon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명

Jewish accusations
and Paul's excuses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5-26장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재고소로 인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으로 인계된 사실과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 온 헤롯 아그립바 왕 2세(Herod Agrippa II)에게 베스도가 바울의 고소건에 관해 조언을 구함으로 청문회가 열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해명)과 베스도의 책망, 그리고 아그립바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26:24-32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Acts 25 shows that Paul was handed over to the newly appointed Festus because of the Jewish accusation. Herod Agrippa II, who came to greet Festus, attends the hearing held by Festus for consultation on the complaint against Paul. Acts 26 records Paul's argument (explanation) in front of King Agrippa, the reproof of Festus, and King Agrippa's reaction.

Acts 26:24-32

24 And as he was saying these things in his defense, Festus said with a loud voice, "Paul, you are out of your mind;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out of your mind."

25 But Paul said, "I am not out of my mind, most excellent Festus, but I am speaking true and rational words.

26 For the king knows about these things, and to him I speak boldly. For I am persuaded that none of these things has escaped his notice, for this has not been done in a corner.

27 King Agrippa, do you believe the prophets? I know that you believe."

28 And Agrippa said to Paul, "In a short time would you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29 And Paul said, "Whether short or long, I would to God that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his day might become such as I am--except for these chains."

30 Then the king rose, and the governor and Bernice and those who were sitting with them.

31 And when they had withdrawn, they said to one another, "This man is doing nothing to deserve death or imprisonment."

32 And Agrippa said to Festus, "This man could have been set free if he had not appealed to Caesar."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베스도는 바울에게 무엇이 "너를 미치게 한다" 고 말했습니까? (24절)

According to Festus what was driving Paul insane? (v. 24)

아그림바 왕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31-32절)

What was the conclusion of King Agrippa after hearing Paul's argument? (vs. 31-32)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루기연함감리교회, 임찬순(TX)
우리만나연함감리교회, 오요한(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수께 미친 사람

A man mad for Jesus

바울의 변론을 듣고 베스도는 크게 소리 질러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참고. 고린도전서 1:2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결코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집니다(참고. 고린도전서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전도는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하는 것임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입증해 보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미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후서 5:13).

Upon hearing Paul's argument, Festus screamed out loud, "Paul, you are crazy.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insane." Then Paul responded, "I am not insane, Most Excellent Festus. What I am saying is the sober truth." To those who do not understand the way of salvation of Jesus Christ, believers may appear to be lunatic: "Christ crucified is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1 Corinthians 1:23).

The gospel of Jesus Christ'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can never be comprehended by the wisdom and knowledge that the world boasts. It is only realized by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cf. 1 Corinthians 2:14,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but considers them foolishness, and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discerned only through the Spirit. "). Paul proved in his life that evangelism is not with the wisdom and knowledge of the world, but with the power and confidence of the Holy Spirit. Obviously, Paul was a completely lunatic person for Jesus: "If it seems we are crazy, it is to bring glory to God. And if we are in our right minds, it is for your benefit." (2 Corinthians 5:13).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9 SEP
화 Tue

로마로 가는 여정

Journey to Ro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7장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가이사(Caesar)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 위해 로마로 향한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하에 배에 오르게 되는 데, 항해 도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들 모두 살 소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것과 어떤 섬에 당도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예언대로 비록 배는 파선되었지만, 배 안에 있던 276명 모두 무사했다.

사도행전 27:14-26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Reading insight

Paul headed for Rome to appeal to Emperor Caesar. Along with other prisoners, he boarded the ship under the leadership of Centurion Julius, and on the voyage, he encountered a hurricane called the Northeaster and was at great risk. When all the possible hope vanished, Paul foretold that people's lives would be preserved and that they would arrive on an island. As predicted, although the ship was shipwrecked, all 276 people on board were unharmed.

Acts 27:14-26

14 But soon a tempestuous wind, called the northeaster, struck down from the land.

15 And when the ship was caught and could not face the wind, we gave way to it and were driven along.

16 Running under the lee of a small island called Cauda, we managed with difficulty to secure the ship's boat.

17 After hoisting it up, they used supports to undergird the ship. Then, fearing that they would run aground on the Syrtis, they lowered the gear, and thus they were driven along.

18 Since we were violently storm-tossed, they began the next day to jettison the cargo.

19 An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s.

20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no small tempest lay on us, all hope of our being saved was at last abandoned.

21 Since they had been without food for a long time, Paul stood up among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and not have set sail from Crete and incurred this injury and loss.

22 Yet now I urge you to take heart, for there will be no loss of life among you, but only of the ship.

23 For this very night there stood before me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worship,

24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25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26 But we must run aground on some islan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만났던 광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4절)

What was the name of the hurricane that the Paul's ship encountered while sailing along the shore of Crete? (v. 14)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 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24절)

What did the angel of God say to Paul? (v. 24)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주요한(TX)
겨자씨 한알 교회, 최영완(NV)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I believe it will be done as you said!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홀로 힘을 얻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란, 바울은 목숨을 보전하여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목숨을 잃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눈에는 광풍만 보여 안절부절했지만, 바울은 광풍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 바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모두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다음 날, 좌초한 배로부터 육지로 헤엄쳐 올라가는 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명의 죄수 한 사람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In the midst of hopeless situation by the hurricane Northeaster, Paul alone managed to gain strength and then gave comfort and courage to everyone on board. This was possible because Paul firmly believed in the word of God's promise. The promise was that Paul would preserve his life and go to Rome, and everyone on board would not lose his or her life. People in the ship were restless to see only the hurricane in their eyes, but Paul looked at God beyond the hurricane. He firmly believed the word of promise given through the messenger of God.

By the time the ship nearly arrived on land, Paul urged people to eat food, thinking that they needed to eat and be energized. But no one listened to Paul. Inevitably, Paul took the bread and ate it as if it were seen in front of everyone. Then everyone ate, and the next day, they were able to work hard to swim from the stranded ship to land. As such, the unknown prisoner Paul became the hope of those on board. It is because, above all, Paul firmly believed the word of God's promise. We also need this faith, "I believe it will happen just as the Lord said! Ame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30 SEP
수 Wed

로마에 도착한 바울

Paul's arrival
at Ro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사도행전 Acts 28장



새496장(통260장)
새벽부터 우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멜리데 섬에 무사히 오르게 되었고, 그 섬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그 곳에서도 바울은 섬의 우두머리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기도로 고쳤을 때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 곳에서 세 달을 머문 후, 알렉산드리아행 배를 타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한 후, 바울은 셋집에서 만 2년간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사도행전 28:23-31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 (없음)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Reading insight

Paul and his friends arrived at the island of Malta safely and was greeted by the people of the island. Even there, many sick people came and were healed after Paul cured the fever of the island's chief Publius's father. After staying there for three months, Paul boarded a ship to Alexandria and finally arrived in Rome. After arriving in Rome, Paul lived in a rented house for two years and boldly preach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cts 28:23-31

23 When they had appointed a day for him, they came to him at his lodging in greater numbers. From morning till evening he expounded to them, testifying to the kingdom of God and trying to convince them about Jesus both from the Law of Moses and from the Prophets.

24 And some were convinced by what he said, but others disbelieved.

25 And disagreeing among themselves, they departed after Paul had made one statement: "The Holy Spirit was right in saying to your fathers through Isaiah the prophet:

26 "Go to this people, and say, You will indeed hear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will indeed see but never perceive.

27 For this people's heart has grown dull, and with their ears they can barely hear, and their eyes they have closed; lest they should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28 Therefore let it be known to you that this salvation of God has been sent to the Gentiles; they will listen."

30 He lived there two whole years at his own expen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him,

31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about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바울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을 때, 바울은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했습니까? (25절)

When the opinions of the Jews who listened to Paul's rhetoric were divided, who was the prophet Paul quote and preached? (v. 25)

바울은 로마에서 만 2년간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30절)

What did Paul do while staying in his rented house for two years in Rome? (v. 30)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스베가스 KUMC, 라온진(NV)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AZ)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전도자 바울

Evangelist Paul

바울의 삶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 나 깨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선교사님들 모두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줄 압니다. 미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마펫(S. A. Mofett, 1864-1939)은 '거리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지나쳐 버리는 것을 아쉬워했으며, 같이 걸으면서 예수를 전했고, 아무리 험소한 골짜기나 오솔길이라도 인가(人家)만 있으면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는 걷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걸어야만 한국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은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이 도보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훌륭한 마차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길이 좁고 고르지 않아 도저히 마차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 창고에 놓아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말았는데, 이유는 자전거가 사람의 걸음보다 빨라 그걸 타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마펫 선교사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In short, Paul's life was the life of an evangelist. He never ceased to preach the gospel. Even in Rome, Paul continued to preach the gospel to all the people he met. As far as I know, all the foreign missionaries, who came to preach the Gospel in Korea in the early days of the mission, preached the Gospel with the same passion like Paul. Mofett (S. A. Mofett, 1864-1939), a missionary sent by th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s known as the "Missionary on the Street". He was regretful that even one person passing by was overlooked, and he preached Jesus while walking, and even visited houses in the narrowest valley or trail.

He said he liked walking. The reason was that he could only meet Koreans by walking. On one occasion, a mother in the United States sent a very good wagon when she heard that her son was struggling on foot. However, at that time in Korea, the road was narrow and uneven, so he couldn't use the wagon and eventually left it in the warehouse. Not only that, he stopped riding the bike because it was harder to share the Gospel with people if the bike was faster than a person's steps. "Walking side by side with Koreans" was the evangelism strategy of Mofet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 하루 \$ 1 per day □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0년 9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 | |
|---------------|-----------------------|
|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1-13 |
|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교회의 확장 사도행전 6:1-15 |
|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교회의 증인 사도행전 9:1-11 |
|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교회의 위임 사도행전 13:1-12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도행전 2:1-13

교회의 탄생



새190장(통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새196장(통174장) 성령의 은사를
새201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① 여는 질문

우리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당시 일화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신현현’(theophany)의 사건으로써 교회를 탄생시킨 이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초월적인 말씀 선포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순절(Pentecost)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불을 이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참고. 민수기 11:31; 시편 104:4; 히브리서 12:29).

성령께서 바람과 불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역성경은 ‘방언’으로 번역했으나 이것은 고린도전서 12-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써의 ‘방언’(glossolalia, tongue)을 뜻하기보다는 단순히 ‘외국어’(glossa, other language)를 뜻합니다. 그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선포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의 현장에 각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고(5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참고. 9-10절),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이 곧 자기 나라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이 기적의 역사는 장차 열국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의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선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일어난 방언 사건의 중요성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그 사실 자체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God’s great deeds of power)을 친히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오순절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4절)
2.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 조롱했습니까? (13절)

④ 삶 속으로

1. 당신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이해를 나누어 보십시오.
2.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기억할 만한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⑤ 암송구절 -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⑥ 자녀와의 나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나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도행전 6:1-15

교회의 확장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600장(통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① 여는 질문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신령직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② 본문 이해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표출된 갈등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로서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이방 도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본토 예루살렘에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친척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지 않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미망인은 의지할 데가 없기에 본토(고향)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들 중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본토 유대인들은 자기편 과부들을 먼저 챙기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열 두 사도는 고심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일곱 명의 지도자들을 세워 전적으로 접대하는 문제를 일임 시키자는 것입니다(2-3절).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 사역에만 힘쓰겠다는 것입니다(4절).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기쁨으로 이 제의를 받아들여 일곱 명의 지도자(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5절). 주목할 것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운 후에 교회는 더욱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7절).

특별히, 일곱 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스데반은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접대하는 일보다는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사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은(10절), 스데반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 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시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른 여섯 명의 지도자들 모두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3절), ‘믿음과 성령’(5절), 그리고 ‘은혜와 권능’(8절)이 총만한 사람이었습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2.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을 때,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여 한 말은 무엇입니까? (13-14절)

④ 삶 속으로

1. 우리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 즉 신령직 직분자들(집사, 권사, 장로)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2. 예루살렘 교회에 택함 받은 일곱 명의 지도자들 모두 성령 총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총만함의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구절 - 사도행전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⑥ 자녀와의 나눔

나라에서 지도자를(대통령, 국회의원 등) 뽑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뽑을까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는다면, 무엇을 보고 뽑아야 하나요?

3주

•기도•찬양•말씀교제•함께기도•교제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도행전 9:1-11

교회의 증인



새278장(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새421장(통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새436장(통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여는 질문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본문은 사울(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 박해를 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위한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의 ‘극적인’(dramatic) 회심에 대한 증거는 다음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살기등등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 전 그의 모습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1절).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곧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 잡듯 잡으려 다녔습니다(2절). 여기에서 ‘그 도’(道, the Way)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써 주로 유대교 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참고. 사도행전 19:9, 23; 22:4; 24:22). 다메섹은 예루살렘 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11절).

둘째,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 후, 자신이 그렇게도 박해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질게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뛰어다니 사람이 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 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3-4절). 나중에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 것도 보지 못해 “사람의 손에 끌려”(8절)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2.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④ 삶 속으로

1. 나 에게도 사울(바울)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회심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지인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2.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준 분이 있습니까?

⑤ 암송구절 - 사도행전 9:3-4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⑥ 자녀와의 나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도움을 준 분들이 있나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도행전 13:1-12

교회의 위임



새507장(통273장) 저 북방 얼음 산과
새511장(통263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새508장(통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① 여는 질문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며 두 개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자의 견해를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위임 받고, 또 파송 받은 이야기와 더불어 그 후, 첫 번째 구브로 섬과 바보에서 이루어진 선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한 특별한 소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참고. 사도행전 9:15). 이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일, 곧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2절)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알려셨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위임하신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를 통과하여 거기서 배편으로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 그 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하자 그 두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5절).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일종의 수행원으로 데려온 마가 요한입니다. 그 후에, 그 일행은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곳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 전도사역에 방해 를 받았지만, 결국 바울이 이적을 행사함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저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위임 받아 파송된 일이 단순히 인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하신 일로써 교

회는 그 명을 받들어 금식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의 명을 따라 선교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1절)
2. 바보에서 활동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는 누구입니까? (6, 8절)

④ 삶 속으로

1. 현재 우리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 힘쓰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마술사)를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⑤ 암송구절 - 사도행전 13:2-3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⑥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Acts 2:1–13

The birth of the church

1 Opening Question

Share amusing stories of how your church first started.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event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is the event of “theophany” that God Himself showed Himself, which could be the miracle that created the Church. Through this miracle, God gave the church the power of transcending the word. Pentecost is one of the three Annual Festivals and refers to the 50th day from the Passover. On that day, when about 120 believers gathered and prayed together, suddenly, a sudden, strong wind-like sound was heard in their ears, and the cracks of the tongue of fire were visible to their eyes. God works by using wind and fire (cf. Numbers 11:31; Psalm 104: 4; Hebrews 12:29).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in the image of wind and fire shows the dynamic presence of the living God.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Here the word ‘language’ is translated as ‘dialects’, rather than ‘glossolalia (tongue)’ that is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n 1 Corinthians 12-14. It simply means ‘glossa (other language)’. The fact that they were able to speak a foreign language they had never learned demonstrates the advent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 which can be understood by people of every nation through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When people from each country came to the scene of the advent of the Holy Spirit (v. 5, “devout Jews from every nation”; see vs. 9-10), and when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heard the voices of those speaking in their tongues, they were amazed and perplexed.

The work of this miracle that enabled the foreign language to be spoken by the com-

ing of the Holy Spirit foretells that the nations of the future will be influenced by the work of the Pentecostal Holy Spirit, and that the proclamation of everything God has done will be made forceful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Pentecost was not about speaking foreign languages, but about personal experience of the 'God's great deeds of power'. Because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orking behind the scenes, the church can proclaim the Word of God with power today.

3 Into the Word

1. What happened to the believers gathered on Pentecost when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v. 4)
2. How did some people showed contempt when they saw believers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v. 13)

4 Into our Life

1. How do you understand the Holy Spirit? Share your understanding.
2. How many people have you touched with the gospel? Are there any fruits of evangelism that you can remember?

5 Memory Verse - Acts 2:4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o you think the Holy Spirit is like?

2 Chronicles 16:1–10

The expansion of Christendom

1 Opening Ques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that should be applied when establishing lay leaders in a church?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disputes had taken place in the ideal and exemplary early Jerusalem church. It was a conflict between Hebrew Jews and Greek Jews. The Hebrew Jews were native Jews who spoke Hebrew or Aramaic, and the Greek Jews were Greek-speaking Jews who were scattered among the Gentile cities. Most of the Greek Jews had lived in foreign cities for a long time, so they had no property in Jerusalem and few relatives. When the husbands who were not rich died, the widows had no choice but to go to hometown to live, and some of them entered the Church of Jerusalem. In the midst of this, the native Jews took care of their widows first, which caused conflict.

The twelve apostles struggled to resolve this dilemma. The conclusion they made was to raise seven leaders to be dedicated to the issue of full hospitality (vs. 2-3). And then the apostles would only focus on praying and preaching the word (v. 4). All members of the church accepted this proposal with joy and chose seven leaders (Stephen, Philip, Procor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olas of Antioch) (v. 5). It is noteworthy tha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se leaders, the church expanded further: "The number of believers greatly increased in Jerusalem, and many of the Jewish priests were converted, too" (v. 7).

In particular, Stephen was the most prominent among the seven leaders. He preached the gospel and performed miracles with the apostles rather than doing administrative works. "None of them could stand against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Stephen spoke.” (v. 10) This verse indicates that it was the Holy Spirit who worked behind the scenes to enable Stephen work as an evangelist. Among all seven leaders, Stephen was particularly full of “Holy Spirit and Wisdom” (v. 3), “Faith and Spirit” (v. 5), and “Grace and Power” (v. 8).

3 Into the Word

1. Why did the Greek Jews blame the Hebrew Jews? (v. 1)
2. When those who argued with Stephen raised false Witnesses, what did they blame against Stephen? (vs. 13-14)

4 Into our Life

1. Talk about how your church elects lay leaders, or spiritual offices (deacons, elders).
2. All seven leaders chosen for the Jerusalem Church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hare if you have evidenc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5 Memory Verse - Acts 6:7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And Stephen, full of grace and power, was doing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electing leaders in the nation (president, parliamentarians, etc.), what criteria are you based on? If you choose a leader in your church, what is your criteria?

Acts 9:1–11

A witness for the church

1 Opening Question

Discuss what is the decisive motive for believing in Jesu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is the story of Saul (Paul)'s conversion. Saul led Stephen's martyrdom and persecuted many Christians and churches. On his way to Damascus, he met the risen Lord and underwent a complete conversion, and when he was ordained by Ananias, he was also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man who was at the forefront of destroying the church is now a witness for the church. Evidence for Saul's "dramatic" conversion can be found in three changes.

First, the violent Paul became a prayer warrior. Before his conversion, he was intimidating and aggressive (v. 1). He went out to arrest 'any followers of the Way' (v. 2) who believed in Jesus. Here, the Way was a designat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and was used primarily to identify Jesus' followers within Judaism (cf. Acts 19:9, 23; 22:4; 24:22). Damascus was about 150 miles northeast of Jerusalem. Saul, who was once eager to travel to that far place and arrest people who believed in Jesus, turned into a prayer person (v. 11).

Second, the person who once persecuted Jesus became the person being maltreated for Jesus. After his conversion, Paul realized that Jesus, who was persecuted, is the Son of God, crucified, dead, resurrected, and ascended. In verse 16 of the text, Jesus appeared to Ananias in a vision and said,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Saul, who persecuted Jesus, became a man who was tormented because of Jesus according to these words.

Third, Paul was once a man who was running all the time, but he became a man who

was dragged. Before his conversion, Saul was running around to arrest believers in Jesus. Then, on the way to Damascus, he suddenly received light from heaven and fell on the ground (vs. 3-4). Later, he got up from the ground, opened his eyes, but couldn't see anything, so he went into Damascus "led by the hand" (v. 8).

3 Into the Word

1. Why did Saul visit the high priest and ask for letters to take to several synagogues in Damascus? (v. 2)
2. Whom did the resurrected Lord tell "Go to Straight Street and look for a man in the house of Judah called Saul?" (v. 11)

4 Into our Life

1. If you have a conversion experience similar to that of Saul (Paul), or if any of your acquaintances have had that experience, share it.
2. Has anyone helped you with prayer and care to encourage you to believe in Jesus?

5 Memory Verse - Acts 9:3-4

"Now as he went on his way, he approached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have you helped someone in his or her faith journey? Or are there some people who helped you (or your family) in your walk with Jesus?

Acts 13:1–12

The calling of the church

1 Opening Question

As you define two terms 'mission' and 'evangelism', share your own opinion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contains the story of Barnabas and Paul commissioned and sent by the Antioch Church as missionaries, followed by the first missionary work in the island of Cyprus and Paphos. At that time, Antioch Church was the center of Gentile missions. In fact, Paul received a special calling from the risen Christ of Damascus for Gentile missions (Acts 9:15). The Holy Spirit informed that the prophets and teachers of the Antioch Church set apart Barnabas and Paul to do something special: 'Appoint Barnabas and Saul for the special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v.2). The work that the Holy Spirit entrusted to the two was to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Barnabas and Paul left Antioch, passed through Seleucia, and sailed to the island of Cyprus. Cyprus was the home of Barnabas, where many Jews lived.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 largest city on the island of Cyprus, the two went to the Jewish synagogue and preached the word of God (v. 5). There was another companion, Mark John, whom Barnabas and Paul brought as a kind of attendant for their missionary work. Subsequently, the group reached a place called Paphos to preach the gospel, where they met a Jewish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a magician who interrupted their evangelism, but in the end Paul's miracles defeated the work of the Devil. Throughout the text, the author of the book of Acts states that Barnabas and Paul were commissioned as missionaries and were not simply sent by human decisions. Rather, it was the Holy Spirit's command to the Antioch Church, which was done by

fasting, prayer, and the men laid their hands on them. The church should always do its best for missionary work by following the command of the Holy Spirit.

3 Into the Word

1. Who were the prophets and teachers who served in the Antioch Church? (v. 1)
2. Who was a magician who was a Jewish false prophet in Paphos? (vs. 6, 8)

4 Into our Life

1. Share what missionary work your church is currently doing and how the church is doing for mission works.
2. Verse 9 dictates, "Saul, also known as Paul,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he looked the sorcerer in the eye." What does it mean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5 Memory Verse - Acts 13:2-3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Then after fasting and praying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Talk with your children about how they think of missionaries who are spreading the gospel abroad and how they can contribute in mission works.

연합감리교회 뉴스와 자료의 새로운 커넥션 <두루알리미>

글쓴이: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합감리교뉴스와 연합감리교자료는 한인 공동체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향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뉴스와 자료를 담아 격주로 무료 배포되는 전자신문(e-newsletter)인 두루알리미를 제작, 지난 5월 21일 첫 시험 배포에 나섰다.

과거 공보부에서는 <섬기는사람들>을 종이신문 형태로 매월 제작 발송했으나, 바쁘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17년 11월 종이신문 발행을 중지했다. 이듬해인 2018년 5월 22일, 연합감리교뉴스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연합감리교뉴스 웹사이트와 연합



감리교회자료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감리교 전반의 뉴스를 공유해오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들은 연합감리교만의 뉴스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곤 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뉴스와 자료가 담긴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는 뉴스와 자료를 직접 찾아가야 볼 수 있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루알리미를 책임질 연합감리교뉴스와 연합감리교자료는 지난 2018년 공보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단장하고 그간 연합감리교회의 뉴스와 자료를 공급해왔다.

연합감리교뉴스는 1300만 연합감리교인들의 뉴스를 다루는 공식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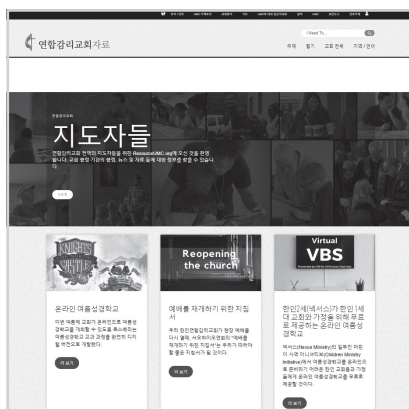
장정 1806.1에 따르면, 뉴스 서비스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교회와 사회의 모든 부문을 위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뉴스 편집을 하며, 교단에 관한 뉴스를 제공”한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연합감리교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솔직히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불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등의 5개 언어를 통해 문화적으로도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어부는 디렉터인 김응선 목사와 편집을 담당하는 양선진 집사는 지난 2018년 출범한 이후, 매주 4~5편의 새롭고 다양한 뉴스와 논평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처럼, 교회로부터 세계분담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 예산을 통해, 연합감리교뉴스는 교회의 각 연회와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고자들의 파트너가 되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연합감리교인 개개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회중들과 회중들의 삶을 변혁시키는 교회 사역 및 교단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자료는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한 새로운 사이트로, 지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영감 및 자료를 한국어로 제작하고 제공한다. 연합감리교회자료에서는 예배, 행정, 선교, 기독교 교육 등과 같은 실용적이고, 특징화한 17가지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자료는 교회력을 바탕으로 교회의 절기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시기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의 기관들과 공동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온라인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자료의 한국부 담당자인 오천의 목사가 담당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자료에서는 특별히 한인총회의 전반적인 소식 및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한국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두루알리미〉구독을 신청하면, 한인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 전반에 걸친 최신 뉴스와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전달받을 수 있고,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목회 정보 및 신앙과 교리에 대한 안내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역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두루알리미〉를 위한 많은 신청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합감리교회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감리교회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격주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선교사들의 휴식처 서울 신림동 감리교웨슬리하우스 화재

글쓴이: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지난 5월 23일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가 운영하는 감리교웨슬리하우스(이하 선교관)의 시설 중 하나인 신림동 건물이 5월 23일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선교관은 교파와 상관없이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해외 목회자라면 누구나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상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쌀과 김치 등 기본적인 음식 재료는 물론 자동차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화재로 전소된 감리교웨슬리하우스 신림동 건물 1층 모습.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신림동 선교관 화재 현장에서 (왼쪽부터) 조정진 목사, 이상윤 목사, 김응선 목사. 사진, 감리교웨슬리하우스 제공.

로 고립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휴양소도 개관
되어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이 난 신림동 선교관은 지하 1
층, 지상 2층 규모로, 불이 났을 때
지하 1층에는 해외선교사 자녀인
대학생 3명과 선교사 등 5명이, 지
상 2층에는 몽골 선교사 부부와 필
리핀 선교사 2명 등 4명이 있었다.
1층이 전소될 정도로 화재가 심각
했지만, 다행히 신속한 대피와 빠

른 화재 진압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한 다른 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아 지하층과 2
층에 머물던 선교사들과 가족들은 그대로 머물 수 있으며, 1층 2개 룸에 머물던 선교사
들은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으로 숙소를 옮겼다.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의 조정진牧사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쉼터로 다세
대주택 4채를 이용해 사랑의 보금자리를 시작한 것이 선교관의 시작이다. 2017년 11월,
당산의 원룸 2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선교사와 가족을 위한 선교관으로 제공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당해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을 접했는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선교관 확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선교
관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는 “해마다 2달간 입국하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칠레선교사, 어머니를 모시고 며칠
이라도 함께 머물며 따뜻한 밥을 해드리며 지내는 게 소원이라고 한 아이티선교사 부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라고 선교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도 언급했다.

2017년 한 독지가의 기증으로 당산역 인근 원룸 2채로 시작된 웨슬리하우스는 2018
년에는 신림동에 단독주택 2채로 확장되었고, 2019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와 해외지역 사역자들의 자가격리 거쳐 및 장기간 머무를 수 있
는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8채의 숙소를 추가 확보했다. 현재 16채 선교관에서 7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거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여 명의 선교사와 해외 목회자 가족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2010년 3월부터 필리핀 북부에서 교회 개척과 교도소 사역 그리고 빵과 급식을 나누며, 장학사역을 하는 김성일 선교사는 “2018년 치과 치료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산 선교관에서 2주간, 2019년 아내 수술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신림 선교관에서 2주가량을 머물렀다. 현재 김 선교사는 아이들 대학 진학과 생활 터전 준비, 건강 진단과 치료를 비롯한 선교보고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는데 아무런 재정적인 부담없이 자유롭게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보다 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마음껏 쉬고 힘을 얻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관이 준비되기를 기도한다. 선교관은 힘들고 지쳤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비 같은 장소다. 웨슬리성화운동본부의 선교관 사역과 차량 나눔 사역은 정말 소중하고 창의적인 사역이라 생각한다.”라고 김 선교사는 덧붙였다.

인도 뭍바이지역에서 음악사역과 현지교회 찬양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병욱 선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감리교웨슬리하우스를 알게 되었고, 이번 코로나19와 비자문제 때문에 갑자기 귀국하여 선교관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장 선교사는 “우리는 코로나19와 비자 만료로 인해 한국에 갑자기 귀국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웨슬리하우스에서 지내면서, 큰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수원 웨슬리하우스를 2주 동안 사용하고, 이어 인천 무의도 선교관을 사용했는데, 선교관에서 세심하게 음식까지 채워주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해외 선교사들이 고국에 갑자기 오게 되면, 거처와 차량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을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감리교웨슬리하우스의 관장인 이상운 목사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특히 최근 급히 귀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선교사들에겐 비용과 기간에 부담을 갖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 웨슬리하우스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항상 한 곳 이상의 숙소를 비워두고 있다. 우리는 세계선교를 위해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늘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에 대해 이 목사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감사했지만, 입소하려던 선

교사 가족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사역자들이 동분서주해야 했다. 다행히 귀국 시간에 맞춰 다른 지역에 있는 웨슬리하우스에 입소할 수 있었다. 웨슬리사회성화실천 본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전국 16개 선교관의 운영비만 겨우 지원해 오던 터라 화재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막막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다.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의 조정진 목사는 <불을꺼주세요!> 캠페인을 긴급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을 섬기는 감리교웨슬리하우스에 불이 났다. 한 바가지와 한 양동이의 물을 길어다 불을 끄듯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여, 선교관이 조속히 복구되고,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전했다.

<불을꺼주세요!> 캠페인 기부금은 전액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Pay To:

WESLEYAN ASSOCIATION FOR SANCTIFICATION INC
Gisoo Song (Branch Director)
139 S CALIFORNIA ST APT B
SAN GABRIEL, CA 91776

WESLEYAN ASSOCIATION FOR SANCTIFICATION INC 계좌 안내

Bank of America
Routing Number 121000358
Account Number 325093601447

* 연합감리교회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감리교회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격주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무고한 죽음 위에 흘리는 애통의 눈물

글쓴이: 정희수 감독(위스컨신 연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31:15)

조지 플로이드, 아흐모드 아베리.

두 이름, 두 생명, 두 죽음, 두 번의 비극.

우리는 그들이 더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부정의에 기인하며, “의도”와 “의혹”과는 무관하게, 정당성이 결여된 폭력으로부터 오는 것에 더 많은 경우 분노를 느낀다.

다만 우리는 소수 인종에 대한 권력자들의 폭력 앞에 서기도 전에 너무 빨리 그들을 용서할 구실을 찾는다. 흔히 선의를 가졌다는 백인들은 나에게 이런 사건들에 인종차별을 갖다 붙이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인종차별을 단지 한 개인이 다른 그룹이나 인종에 대해 갖는 태도나 세계관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종차별은 가장 기본적인 인종차별이지만 그것은 더 깊은 문제의 현상에 불과하다.

한 백인 여성이 센트럴 파크에서 반려견을 목줄로 매지 않은 채 산책을 시키고 있을 때, 한 아프리카계 미국 남성이 자신은 새를 보러 왔기 때문에 반려견에 줄을 채워줄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그 권유를 거절하고, 자기 휴대폰을 꺼내 그 남성이 흑인임을 강조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겠는가?

우리는 다름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 판단과 편견의 원인으로 삼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제도적인 억압, 인종편견에서 비롯된 폭력, 외국인 혐오의

부추김 및 소수인종들을 색안경 끼고 보도하는 언론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의심하고 정죄하는 인간의 속성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경전인 구약과 신약은 지파주의, 인종분리, 노예제도,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다.

바울은 예수님을 노예와 자유주의,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고, 우리들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라 이해했다.



그림, 윌리엄 존슨의 〈탄식(Lamentation)〉, 스미스소니언 아메리칸 아트뮤지엄.

바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확인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종과 민족을 염두에 두고 찾아야 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근본 진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능가한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이들을 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과 병든 이들 그리고 사회 주변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와 다른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우리 감정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한 것보다 수동적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그저 감정이 아니다.

궁홀한 마음은 단지 무기력한 생각이 아니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활력을 준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평화를 만드는 이들이 복되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인종이나 민족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는 지역이나 교육 정도나 정치적인 당파를 떠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제자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이지 듣기만 하는 이들이 아니다. 제자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어떠한 재능을 이용해서라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 이는 모두 적극적인 행동이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다.

거의 팔 년을 위스콘신에서 지내면서 나는 젊은 흑인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죽는 이 현실에 충격받고 슬퍼했다.



내 마음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로 향하지만, 또 내 마음 한편은 이런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경찰이든 아니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무거워진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이들이 벌어지는 지역사회들을 위해 통곡한다. 특히 나는 밀워키를 걱정한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는 이 나라에서 젊은 흑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망가진 제도들을 가진 채, 흔히 개인만을 비난하려다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

무고한 사람들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죄지는 이들은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말 정의가 공평하다면 사람들은 안전하다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아무도 죽지 않게 하소서. 지나친 힘과 폭력을 쓰지 않고도 사람들을 진정시킬 방법을 마련하게 하소서. 모든 만남은 한 하나님의 자녀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만남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하소서.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젊은 흑인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중단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친절하고, 정의롭게,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은혜와 평화,

정희수 감독

* **김영봉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M.Div.) 미국 남감리교대학교(SMU) 퍼킨스신학대학원(STM)에서 수학한 뒤, 캐나다 맥매스터대학교에서 신약성서와 기독교 기원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에서 프로처럼 Zoom을 사용하기 위한 7가지 조언

글쓴이: 오천의

“사회적 거두기”라는 용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화상 회의가 목회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스코사의 웹엑스나 링 컨퍼런스와 같은 여러 플랫폼 중에서 줌(Zoom)이 화상 회의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택 대피 명령”이 해제된 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함께 모이고 성장하는 사역에서 줌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한다. 따라서 목회 사역에서 줌을 전문가처럼 사용하는 몇 가지 조언을 공유하려고 한다.



사진, 가브리엘 베노이스, 인스플레쉬, 사진편집,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 각 교회가 월 \$14.99 혹은 년 \$149.90 줌 프로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일부 지방회는 지방 회에 속한 교회를 위한 지방회 계정이 있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준비

1. 더 나은 음향

휴대 전화나 컴퓨터에 줌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 외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USB 마이크를 구매하는 것이다.

온라인 생방송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많은 글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공통적인 조언이 있다. ‘좋은 음향이 필요하다.’ 음향이 괜찮기만 하면, 사람들은 끄찍한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향이 끄찍하다면 사람들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줌 회의에 참여하는 데 음향이 나쁘다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줌 회의 중에는 내장형 마이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USB 마이크’를 검색하면 \$50–70 범위의 괜찮은 수준의 마이크를 찾을 수 있다(물론 고품질 마이크의 가격은 더 높을 것이다). 이마저 가능하지 않을 때, 마이크가 있는 헤드폰을 사용해보라. 품질이 대단하지 않지만, 내장 마이크보다 우수하다.

2. 일관된 링크 사용

많은 회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줌 회의 링크를 찾기 위해 이메일 / 텍스트를 일일이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회의가 시작되기 1 시간에서 30분 전에 미리 알림을 보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서 계속되는 모임(온라인 예배, 소그룹, 임원회)에 일관된 링크를 설정하는 것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관된 링크를 보내려면, 줌 회의 링크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줌 링크는 개인 회의 신원 증명(Personal Meeting Identification) 다음에 오게 된다. 이 PMI는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다. 본인의 약력(Profile)로 가서 PMI 수정(Edit)을 클릭하라. 교회 전화번호나 교회 소유의 10자리 숫

자를 링크에 사용할 수 있다. (* Zoom에서 되풀이되는 모임을 설정할 때, PMI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밀번호가 포함된 줌 링크를 보낼 수 있다. 비밀번호가 포함된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는 회의에 입장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줌은 비밀번호를 추가 보안 조치로서 변환한다.

3. 가상 배경

줌 회의를 10대들과 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2분마다 그들의 배경을 바꾸는지 궁금한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 배경을 사용 시의 장점은 1) 교회 모임임을 알리는 배너를 사용할 수 있으며 2) 줌 회의 방을 모일 때마다 정리할 필요가 없다. (*줌 앱을 실행한 후, 오른쪽 상단의 설정(Setting)을 클릭 한 후, 가상 배경(Virtual Background) 버튼을 찾아 클릭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가상 배경을 사용하거나 가상 배경 이미지를 다운 받은 후 더할 수 있다.)

회의 중

4. 전화 참여

줌의 장점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교인을 전화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주에서 전화로 줌 회의에 참여할 경우, 추가로 수신자 부담 번호를 구입(한 달에 \$100와 추가비용이 발생)해야 한다. 장거리 전화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로그인하면 전화를 통해 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전화 예배를 시도해야 한다. 본인의 교회에서 90세 이상의 많은 교인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유선 전화를 통해서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화 예배를 주최하였다. 교회 어른들은 모여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고 대화한다. 잠시 후, 기도하고 그 주일 예배 본문을 읽는다. 그런 다음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공유 화면'기능을 사용하여 그 주일을 위해 녹화된 설교를 듣는다. 설교 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낸다. 이 전화 예배가 교회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교류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어

른들이 전화를 통해 대화하고 웃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로 기쁨이다.

5. 소그룹(Breakout Room) 기능

주일 날, 주일학생들이 주일학교 예배당에 모여 잠시 인사를 하고 각자 분반 공부방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라. 소그룹 기능을 사용해서 줌 회의에서도 대규모 모임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회의를 할 수 있다.

소그룹 기능은 교회 건물의 주일학교 교실과 비슷하다. 줌 회의 주최자는 교회에 몇 개의 소그룹 모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줌 주최자는 소그룹 기능을 설정하고 에서 기다리다가, 교인들이 들어오면 환영한다. 교인들이 전체 회의로 들어오는 것은 교인들이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줌 주최자는 특정 소그룹 모임에서 두 명 이상이 참석하면 줌의 소그룹으로 보낼 수 있다. 이 과정은 누군가 전체 회의에 들어올 때마다 발생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기적으로 주일 성경공부반을 계속할 수 있다.

주일 아침에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모두가 함께 전체 회의로 모이는 것이 어렵다. 이 소그룹 기능을 주일학교에서도 적용해서 분반 공부로 사용할 수 있다. 각 교회마다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 줌의 소그룹 기능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6. 공유 화면 옵션

그런 다음, 소그룹 기능에서 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부 소그룹에선 교인이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기도를 함께 나눈다. 다른 소그룹에서는 실제로 성경을 공부한다. 다른 소그룹에서는 비디오 강의와 함께 성경을 공부한다.

줌에서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

- 1) 제어판에서 '화면 공유(share Screen)' 버튼을 클릭하라.
- 2) 공유하려는 화면 또는 앱을 클릭하라.
- 3) 비디오를 재생할 때는 '컴퓨터 소리 공유' 및 '비디오 클립을 위한 화면 공유 최적화'를 체크하라.

공유 화면 기능을 사용하면 회의의 주최자가 비디오 강의 재생할 수 있으며, 그룹은 강의 후 자기 생각을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다. 우리 주일학교의 경우, 다음 세대

(NextGen) 담당자는 매주 강의를 녹화한다. 전체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녹음된 강의를 보여주고, 다시 소그룹 기능을 통해 각 분반에서 함께 모인다.

회의 후 공유

7. 줌 녹화 기능

회의 내용을 녹화하려면 줌의 개인 프로필로 이동해서 세팅을 클릭한 후, 다시 녹화 기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대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옵션이 있다.

소그룹 모임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녹화하는 것이 좋다. 웨비나처럼 녹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줌 모임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신을 녹화하거나 한두 명의 교인을 초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녹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줌 회의에 이들을 초대하고 토론을 미리 연습한 후에 녹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정보가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에 서로 더 가까워지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바란다. 추가 아이디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 글쓴이 : 전승수 목사, 랄리코트연합감리교회(Raleigh Court United Methodist Church), 버지니아주

* 엮은이 :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자녀들과 인종 차별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5가지 조언

글쓴이: 오천의

월 윌리몬 목사는 인종은 허구이지만 인종 차별은 사실이라고 대담하게 밝히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 포박된 상태에서 질식사한 사실은 인종 차별의 현실을 증명한다. 인류의 외모와 행동은 다양하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심지어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가치를 만장일치로 인정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종 차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맞서야 한다. 그러기에 너무 늦지 않았고... 우리 자녀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너무 이르지 않다.

자녀와 인종 차별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한 조언 5가지



사진, 마커스 스피스케, 언스플레쉬. 사진편집,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인종 차별은 우리가 어린이와 함께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는 어려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기에, 필요한 주제이다. 이 유용한 조언을 이용해서 어린이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보라.

대화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다양성과 인종 차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명확히 준비하고 자녀에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가족은 자녀에게 인종에 관한 신앙의 핵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인간은 다양하며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사랑받고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이 말하도록 하라

아이들은 종종 공정성에 대한 자간의 기준과 인식이 있다. 아이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접 대답하도록 하라: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 옳거나 공정한 거니? 만약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다른 사람이 피부색 때문에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걸 목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어린이들이 질문할 기회를 주라. 인종 차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영구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왜 사람들이 인종 차별을 행하는지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아이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

아이들의 경험과 관련시키라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그 대답을 그들의 세상과 관련시키려고 노력하라. 대답과 관점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다. 유색 인종 어린이는 자신들의 가치와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들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백인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알려준다.

함께 보는 영화나 아이들이 읽은 책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영화나 책 속에 주인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주인공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라

묵살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요구하는 것은 동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을 무시하지 않도록 격려하라.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일들에 대해 아이들이 신뢰하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자신들과 다르게 보이는 아이와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할수록, 그들은 서로 더 익숙해질 것이다.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서 인지하는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격려하라.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다양성을 찾고 이를 인정할 때 “색맹(편집자 주 - 피부색을 떠나 사람들을 보지만, 인종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아이들보다 인종 차별적 행동을 더 잘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다.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라

특히 이것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인종 차별에 대한 행동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 속의 인종 차별에 대한 탄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의 좌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우리의 분노나 좌절감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배출 수단은 무엇인가?

아이들과 사회, 둘 다와 대화하려고 노력하라. 인종 차별의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인종 평등을 증진할 것이다. 오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임브레이스 러브 자료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 조언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라이언 던 목사**는 리씽크 처치 온라인 목회자이다. 테네시주 내쉬빌의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사무실에서 글을 쓰고 있다.

* **웁킨이**: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MISSIONARY OF THE MONTH

Jungah, Walter O.

Advance : # **3022543**

Country : **South Africa**

Serving At : **Cape Town Sowers of the Word Church**

Home Country : **Kenya**



Walter Otieno Jungah is a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He was commissioned on July 28, 2019.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Walter is from Nairobi, Kenya. He is a member of St. John's Kayole United Methodist Church, Nairobi City, in the Kenya/Ethiopia Annual Conference. He holds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computer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Eldoret in Uasin Gishu County, Kenya. He has worked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assistant for two and a half years at Kimfay East Africa Limited, a cybercafé attendant and an industrial attaché at the state-owned Kenya-Meteorological-Department.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Walter spent his early years in Anglican and Deliverance churches. He attended a Catholic high school. In 2014, a classmate invited him to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 "I was impressed by the way I was welcomed by church members, their services, the Bible studies classes for new believers and the overall teaching," he said. "I am a proud membe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 believe God has a reason for my life. I have so far served in small capacities to alleviate human suffering. I understand a lot is yet to be achieved." He looks forward to being a Global Mission Fellow, he noted, "to reach out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learn and implement better approaches to charity work, and fight against injustice."

Contact Information : wjungah@umcmmis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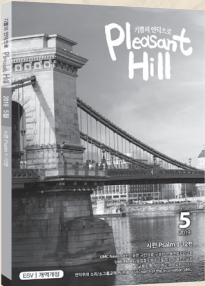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이승필,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헨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스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기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리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임학순, 949-380-7777)
리팔미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엔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욱,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8-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구진모,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정명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양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준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균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락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용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서,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용,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 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일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이거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근, 732-613-4930)
 그레이스벤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호,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벳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김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백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니목교회(문정용,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희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도, 405-672-5062)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상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브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택,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현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관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0/01			2020/02			2020/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골로새서	1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주일
02		2	02		주일	02		1
03		3	03		2	03		2
04		4	04		3	04		3
05		주일	05		4	05		4-5
06	갈라디아서	1	06		5	06		6-7
07		2	07		6	07		8
08		3	08		7	08		주일
09		4	09		주일	09		9
10		5	10		8	10		10
11		6	11		9	11		11
12		주일	12		10	12		12
13	에베소서	1	13		11	13		13
14		2	14		12	14		14
15		3	15		13	15		주일
16		4	16		주일	16		15
17		5	17		14	17		16
18		6	18		15	18		17
19		주일	19		16	19		18
20	빌립보서	1	20		17	20		19
21		2	21		18	21		20
22		3	22		19	22		주일
23		4	23		주일	23		21-22
24	데살로니가전서	1	24		20	24		23
25		2	25		21	25		24
26		주일	26	룻기	1	26		25
27		3	27		2	27		26
28		4	28		3	28		27:1-28:2
29		5	29		4	29		주일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28:3-29:11
31		3				31		30-31

2020/04			2020/05			2020/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2	02		2	02		2
03		3	03		주일	03		3-4
04		4-5	04		3	04		5-6
05		고난주일	05		4	05		7-8
06	마태	21	06		5	06		9-10
07	마태	22	07		6	07		주일
08	마태	23	08		7	08		11-13
09	마태	26	09		8	09		14-16
10	마태	27	10		주일	10		17-19
11	이사야	53	11		9	11		20-21
12		부활주일	12		10	12		22
13	사무엘하	6	13		11	13		23-24
14		7-8	14		12	14		주일
15		9-10	15	호세아	1	15		25
16		11	16		2	16		26
17		12	17		주일	17		27
18		13	18		3	18		28
19		주일	19		4	19		29
20		14	20		5	20		30
21		15	21		6	21		주일
22		16	22		7	22		31
23		17	23		8	23		32
24		18	24		주일	24		33
25		19	25		9	25		34
26		주일	26		10	26		35-36
27		20-21	27		11	27		37-38
28		22	28		12	28		주일
29		23	29		13	29		39-40
30		24	30		14	30		41-42
			31		주일			

2020/07			2020/08			2020/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	01	역대하	6	01	사도행전	1
02		2	02		주일	02		2
03		3	03		7-8	03		3
04		4-5	04		9	04		4
05		주일	05		10	05		5
06		6	06		11	06		주일
07		7-8	07		12-13	07		6-7
08		9	08		14	08		8
09		10	09		주일	09		9
10		11	10		15	10		10
11		12	11		16-17	11		11
12		주일	12		18	12		12
13		13-14	13		19	13		주일
14		15	14		20	14		13
15		16	15		21	15		14
16		17	16		주일	16		15
17		18-19	17		22	17		16
18		20-21	18		23	18		17
19		주일	19		24	19		18
20		22-23	20		25	20		주일
21		24	21		26-27	21		19
22		25	22		28	22		20
23		26	23		주일	23		21
24		27-28	24		29	24		22
25		29	25		30	25		23
26		주일	26		31-32	26		24
27	역대하	1	27		33	27		주일
28		2	28		34	28		25-26
29		3	29		35	29		27
30		4	30		주일	30		28
31		5	31		36			

2020/10			2020/11			2020/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1	01	예레미야	주일	01	요한복음	1:1-18
02		2	02		30	02		1:19-51
03		3	03		31	03		2
04		주일	04		32	04		3
05		4	05		33	05		4
06		5	06		34	06		주일
07		6	07		35	07		5
08		7	08		주일	08		6
09		8-9	09		36	09		7
10		10	10		37	10		8
11		주일	11		38	11		9
12		11	12		39	12		10
13		12	13		40-41	13		주일
14		13	14		42	14		11
15		14	15		주일	15		12
16		15	16		43	16		13
17		16	17		44-45	17		14
18		주일	18		46-47	18		15
19		17	19		48	19		16
20		18	20		49	20		주일
21		19-20	21		50	21		C-1
22		21	22		주일	22		C-2
23		22	23		51	23		C-3
24		23	24		52	24		C-4
25		주일	25	예레미야애가	1	25		C-5
26		24	26		2	26		17
27		25	27		3	27		주일
28		26	28		4	28		18
29		27	29		주일	29		19
30		28	30		5	30		20
31		29				31		21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김응선(총회 공보부), 오천의(총회 공보부)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김영실
-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이광훈 목사(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주일 칼럼

김영봉 목사(와싱턴 사감의교회, VA)

장재웅 목사(워싱턴 하늘 비전 교회, MD)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도상원 감리사(뉴저지 Raritan Valley, NJ)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